

2023 충남시민사회史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걷는

# 작은 기쁜 거인들



2023 충남시민사회史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걷는

작은  
거인들



## 발간사

2023년 『충남 시민사회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치있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 충남도민들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 지역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수록된 이야기들은 감동적이고, 때로는 정겨우며, 때로는 치열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약자와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만들고 있는 천안의 ‘한뼌인권행동’,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 주거권 문제를 제기하는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발달장애 학생의 농업 진로 교육을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홍성의 ‘꿈이자라는뜰’, 지역의 동물권 단체들이 모여 동물정책에 대한 사회활동 펼치는 ‘충남동물권단체연합’입니다.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동물권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충남은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이 평화로울 것만 같은 농촌에는 의외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가꾸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농촌 난개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홍성의 ‘농본’, 고령화되어 버린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어르신 돌봄의 해결책을 찾는 예산의 ‘시산리아리

랑공동체’, 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논산시여성농민회’, 동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부여안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늘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소금이나 면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관동대학살의 비극을 기억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 아직도 인양되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촛불로 밝히고 있는 ‘서산태안시민행동’, 16년 동안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데이트 폭력 지역 축구팀 선수를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킨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공익의 사회적 가치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 거창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선행만큼 주목받지도 못하고, 정치인의 발언처럼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익적 사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를 여전히 지지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지와 응원의 칭찬을 저희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신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활동들에 참여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좋은 글을 정리해주신 정명진 작가, 김보리 작가, 안현경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만화를 통해 단체의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담아주신 주신애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책을 발간해 낸 김다운 매니저에게도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활동의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정성껏 임해주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께 그 노고에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 임오윤

# contents

## 01

### 약자도 행복한 세상



- 010 “장애인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한뼘인권행동**
- 022 장애의 경계를 넘어 마을정원을 꿈꾼다  
농촌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보듬는 **꿈이자라는들**
- 034 지역 복지정책 시민운동의 주춧돌을 놓다  
아동주거권을 지역의제로 부각시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046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기동물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힘쓰는 **충남동물권단체연합**

## 02

### 농촌이 살아남는 법



- 060 **살만한 농촌을 위해 법·제도를 바꾸는 싸움**  
개발자본으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 072 **평생 살아가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마을돌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산리 아리랑돌봄공동체**
- 082 **삶·생명·생산의 주인 ‘여성농민’**  
고된 농촌살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논산시여성농민회**
- 094 **청년들의 예술활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다**  
화합의 시민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부여안다**

## 03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 108 **은폐된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히다**  
일본 ‘간토대학살’을 기록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 120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촛불을 들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 132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보루**  
지역사회에서 차별·혐오에 맞서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44 **여성폭력부터 일상 속 문제까지 지역을 건강하게!**  
데이트폭력 료헤이 퇴출 운동 **아산시민단체협의회**

# 약자도 행복한 세상



“장애인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한편인권행동

010

장애의 경계를 넘어 마을정원을 꿈꾼다  
농촌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보듬는  
꿈이자라는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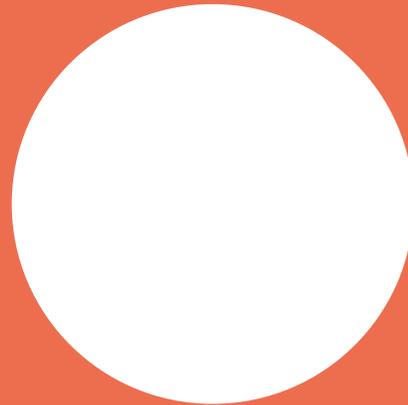
022

지역 복지정책 시민운동의 주춧돌을 놓다  
아동주거권을 지역의제로 부각시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034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기동물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힘쓰는  
충남동물권단체연합

046



# “장애인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장애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장애가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장애인 기준에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해져요.  
엘리베이터를 보세요. 휠체어만 편한가요?  
바퀴 달린 모든 게 다 편해지잖아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한뼘인권행동**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한뼘인권행동(이하 한뼘) 대표인 배은경 씨를 만나기로 한 건 오후, 쌍용동 자택이었다. 직접 만나기 전까지 은경 씨가 어느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전화통화로 약속을 잡았고 메시지로 관련 자료와 약속장소 등을 전달받았다. 인터뷰 시간이 잠시 남아서 차 안에서 자료를 보고 있던 도중 전

화가 왔다.

“도착했으면 지금 올라와 주실래요? 작가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자택으로 가보니 은경 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전동휠체어에 타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있지만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종종 받는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은경 씨를 전동휠체어로 들어 옮기고 인터뷰 준비를 했다.

은경 씨는 오전에 회의가 있어 다녀온 참이었다. 손발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 혼자 전동휠체어를 타고 40분을 달려 신부동에서 열린 회의에 갔다.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돌아왔고,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 왔다. 은경 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늦은 점심을 하며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중간 중간에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폭신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능숙하게 혀로 터치해 메시지와 파일 등을 전송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은경 씨는 하갯길 아들의 전화도 받았다. 생활과 활동을 수시로 드나드는 능숙한 모습에 놀라워하자 단체 소식지 문구며 발제문 작성도 스스로 한다고 귀땀해준다. 문득 그에게 장애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다.

“장애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장애가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장애인 기준에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해져요. 엘리베이터를 보세요. 휠체어만 편한가요? 바퀴 달린 모든 게 다 편해지잖아요.”

「내 안의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작가는 난민을 차별하려는 사람들은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아는 이웃이, 아이의 친구가 난민이라면 이런저런 논리를 넘어 차별을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경 씨의 활동도 그렇다. 손 하나 움직이기 힘들지만 시장에서 장을 본다. 전동휠체어를 보고 재밌겠다고 말하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나는 이게 탈것이 아니라 필수품이야”라고 설명해준

다. 장애인을 멀리 있는 누군가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이웃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낸다.

## 시민이 되기 위해, 멀미약을 먹고 저상버스를 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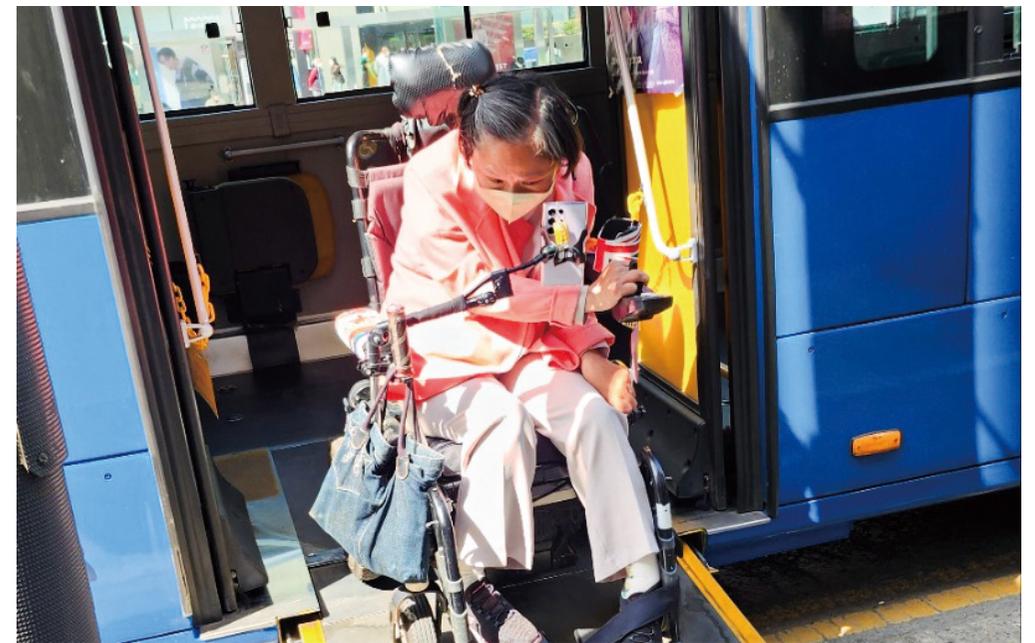
그런 그에게도 한뼘의 저상버스 ‘가치타유’ 캠페인은 어렵다.

“버스를 타면 너무 힘들어서 꼭 멀미약을 먹어야 해요. 멀미약을 먹고 나면 졸음이 밀려와 집에 오면 쓰러져 버리죠.”

그럼에도 은경 씨가 버스를 타는 건 천안의 저상버스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행되기 위해서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유아차, 실버카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다. 한뼘에 따르면 천안시 158개 버스노선 중 10개 노선이 저상버스를 운행 중이다. 교통약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상버스가 승강장에 가깝게 정차해야 하고, 운전기사들이 수동리프트나 경사판 등을 조작한 다음 휠체어나 탈 것들을 탑승공간에 고정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별도의 사전교육 없이 저상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휠체어가 오르기 위한 리프트 조작은 커녕 승강장 가까이 정차하는 일조차 드물었다. 이에 한뼘이 함께 활동하는 배리어프리네트워크에서 저상버스 타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한뼘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저상버스 ‘가치타유’ 캠페인이다.

“교통약자를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장애인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상버스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한 활동이에요. 대중교통인 버스는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손을 들지 않으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택시버스’라고 했어요.”

은경 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자 처음에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당황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승강장 가까이 정차하려면



저상버스 ‘가치타유’ 캠페인 모습. 배은경 대표는 매번 멀미약을 먹고 버스에 오른다.

몇 번을 앞뒤로 움직여야 했고 리프트 조작 매뉴얼을 배우지 못해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같이 들어서 놓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휠체어가 타면 어디다 고정할지를 몰라 또 한참을 헤맸다. 이런 실랑이가 이어지다 보면 비장애인 탑승자들이 시간지체를 견디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리기도 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누군가 얘기하자 은경 씨는 그 자리에서 외쳤다. “우리는 시민 아닌가요?”

한뼘은 저상버스 이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운전기사들의 저상버스 운전 숙련도는 눈에 띄게 나아졌다.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도 않고 조작도 익숙해졌다. 천안시로부터 오래되어 폐기되는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오히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태도라고 한다.

“우리가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버스기사에게 ‘이런 수고까지 하시느라 감사하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불편함을 끼쳤다는 말처럼 들리죠. 승강장 가까이에 버스가 정확히 정차하는 일이 꼭 장애인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 아닌 데도 말이에요.”

은경 씨의 말을 듣다가 문득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와이키키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관광객용이 아닌 현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낡은 버스였다. 앞쪽 빈 좌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손짓하며 일어나라고 했다. 열결에 자리를 비키자 전동휠체어를 탄 나이 많은 승객이 들어왔다. 다른 승객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자리를 비켜주고 버스기사는 3개짜리 좌석을 들어 올려 휠체어가 있을 자리를 만든 다음 다시 운행했다. 그 낡은 버스는 그러니까 저상버스였던 것이다. 버스가 전동휠체어를 태우고 승객들이 다른 자리로 가 앉는 것은 너무도 일상적인 듯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이 이야기를



2023년 3월 25일 두정동 공간사이에서 열린 정기총회.

들려주자 은경 씨는 버스가 정말로 한 번에 정류장에 맞춰 섰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체됐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며 눈을 반짝였다. “그런 곳에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언제쯤 우리는 그런 버스를 타볼 수 있을까요?”

### 휠체어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온 문학소녀

어릴 적부터 뇌병변을 앓았던 은경 씨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고향인 충북 영동은 시골이어서 특수학교도 없었고 부모님이 매번 업고 다니며 등하교를 할 수도 없었다.

“TV 공익광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글자를 깨쳤어요.”

그렇게 글자를 스스로 깨친 은경 씨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세상



2022년 12월 16일에 열린 한뼘인권행동 송년회 모습, '가치타유' 캠페인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에게 시상하고 있다.

에서 지냈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휠체어를 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스물세 살에 시집 「하늘보며 별따기」를 냈고 문인협회에 가입해 사람들과 글로 소통했다. 글과 인터넷은 은경 씨에게 장애가 없는 세상이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천안으로 결혼해서 오게 되었고 맨 처음 알게 되어 가입한 곳이 '한빛회'라는 중증장애인 모임이었다. 거기서 한뼘인권행동을 만든 임재신 씨를 만났다. “오빠가 참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임재신 씨는 루게릭 병을 앓으며 딸과 살고 있었다. 한뼘은 중증장애인연대이지만 인권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은경 씨는 한뼘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10명 남짓 장애인으로 시작한 단체는 10여년을 지나 현재는 비장애인 후원회원까지 포함한 128명의 회원들로 이뤄져 있다. 임재신 씨는 갑작스레 시력을 잃은 개

그땐 이동우 씨에게 망막기증을 하겠다고 나섰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둘이 제주도 여행 떠난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 see-saw'로 상영되기도 했다. 결국 이동우 씨는 재신 씨에게 '너 멀쩡한 거 눈 하나인데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재신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재신 오빠가 생전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은경아 네가 대표 좀 해 보면 어떨겠니'라고요.”

은경씨는 큰 결심을 하고 2021년 단체 대표를 맡았고, 이왕 맡은 거 잘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시작하자마자 충남도청 인권단체협의회 활동과 배리어프리 활동을 했고 현재도 지속 중이다. 내부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보장구 세척이나 매트리스 청소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신청해서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뼘인권행동 회원들의 체험 프로그램.

“코로나 기간 동안 다들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회원 한 명씩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다들 가장 원하는 건 바로 함께 모이는 일이었어요.”

중증장애인들끼리는 줌 회의도 어렵다. 음성, 화면 버튼을 시시때때로 끄고 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회원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비장애인 후원회원도 많기에 기부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단체 등록도 신청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만으로 꾸려가기에 홈페이지 관리와 행정을 하는 실무진은 별도로 없다. 은경 씨와 남편이 일을 꾸린다. 한뼘 회원이기도 한 남편은

여러 활동을 먼저 제안할 정도로 은경 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내내 한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니까요.”

## 한 뼘씩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 눈에 세상은 온통 장애물 투성이다. 그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도 우리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다.’ 한뼘의 홈페이지 단체 소개에 있는 문구다.

“지난번에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안내도우미도 없이 다들 번호표만 뽑아요. 사람이 많은데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공기관들도 사람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종이빨대로 다들 바꿨는데 뇌병변 장애인은 입에 침이 너무 고여서 종이빨대를 쓰기 어려워요. 세상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너무 빨리 바뀌는 느낌이에요.”

한뼘은 그런 세상에 문을 자주 두드린다. 캠페인을 하며 거리에서 행동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해 의사표현을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은 다가서는 자에게 열리지, 숨어 있는 자에겐 열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어찌고저찌고 말만 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먼저 앞장서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바뀌가길 노력하면 세상의 문이 열려요. 활짝은 아니고 한 뼘씩.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한 뼘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 인권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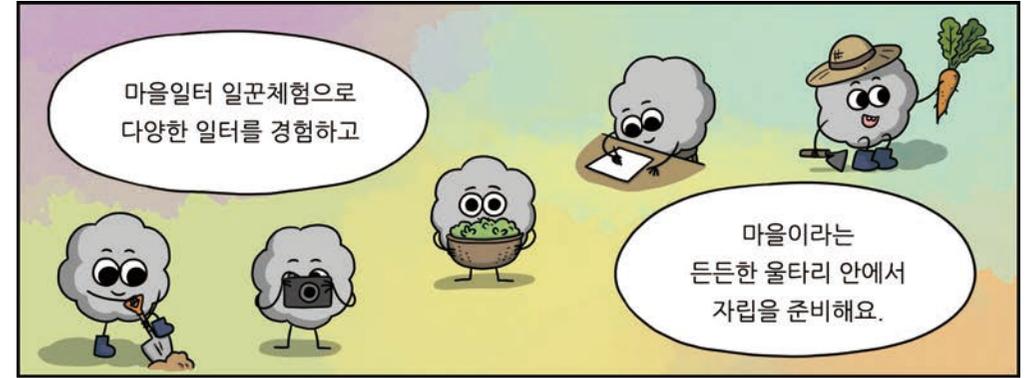
## 한뼘인권행동 활동일지

2012년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창립
2013년 5월~	배리어프리네트워크 활동
2014년	비영민간단체 등록, 한뼘인권행동 개칭
2016년~2017년	천안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0년 1월	천안 저상버스 승강장 실태조사 보고서 역음
2021년 5월	사무실 이전
2021년 10월	충남인권협의회 활동, 분기별 소식지 연 4회 발간
2022년 9월	홈페이지 개설
2022년 11월	위기충남공동행동 연대활동
2023년 2월	배리어프리 캠페인 진행
2023년 3월	배리어프리 제2차 회의
2023년 4월~11월	저상버스 '가치타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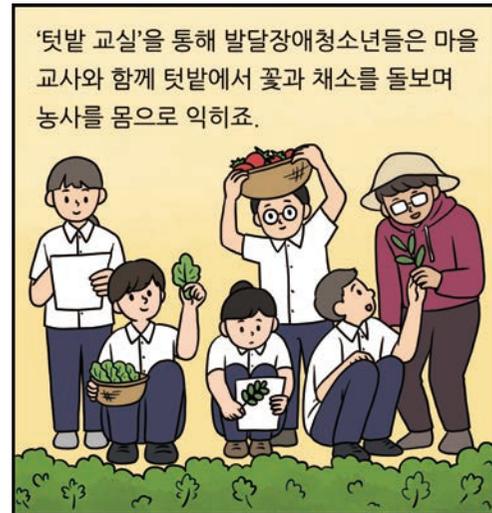
## 장애의 경계를 넘어 마을정원을 꿈꾼다

“농사와 마을이라는 바탕 위에서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익히며, 자기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좋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농촌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보듬는  
꿈이자라는들



'꿈이자라는들(이하 꿈들)'은 2009년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터이자 일터로 시작했어요.





꿈이자라는뜰 대표일꾼 보루(최문철)

“장애인의 ‘꿈이자라는뜰’에서, 모든 구성원의 꿈이 함께 자라는 뜰로”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는 농장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만나는 농장으로”

2009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 풀무학교의 한 실습지에서 시작한 ‘꿈이자라는뜰(꿈뜰)’은 지난 14년간 변화를 이같이 정리했다. 몇 년간 힘들게 일군 동지를 잃기도 했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농사짓는 삶에 대한 가치를 지키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일이 지극히 어렵지만, 꿈뜰은 여전히 꿈을 키워가며 진화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해도 집에만 머물며 고립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 마을에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며, 특수교사와 뜻있는 주민들이 모인 것이 꿈뜰의 모태가 되었다. 오랫동안 풀무학교 교장을 지낸 홍순명 선생은 2009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열린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그리는 준비모임’을 마치고 이런 글을 남겼다.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은 장애인 학부모들에게는 당장 초, 중, 고, 전공부를 나오고 나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고 지역으로도 장애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숙제가 되어왔습니다.”

### 마을, 발달장애청소년을 보듬다

당시 농촌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이 도시처럼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카페도,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도 없었다. 결국 기댈 수 있는 것은 농사와 마을이었다. 2009년부터 꿈뜰을 일궈온 보루(본명 : 최문철)는 장애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농촌만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들이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농사이니,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농부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경험과 역량이 필요해요. 먼저 그것을 몸에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초·중·고 12년이라



지역 발달장애청소년들은 텃밭교실에서 농사를 몸으로 배우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는 긴 시간 동안 농사라는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1회씩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텃밭교실’은 유기 농업에 생태교육과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이다. 당시 장애인이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는 모델도 드물었고, 장애청소년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과정은 국내에서 첫 시도였다.

꿈뜰은 소개자료에서 텃밭교실에 대해 “마을교사와 함께 각자의 텃밭에서 꽃과 채소를 돌보며, 농사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라며 “농사일을 하면서 눈, 귀, 코, 입, 머리, 손, 발, 마음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밖으로는 선생님, 친구, 동료, 가족, 이웃들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일꾼으로 자란다”고 설명한다. 텃밭교실은 마을일꾼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졸업 이후에는 꿈뜰의 농장일꾼으로 성장해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다. 꿈뜰은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이자, 미래의 일터이다.

농사라는 경험은 다른 직업적인 기술, 삶의 기술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숙련된 농업노동자를 키우는 것이 꿈뜰의 목표는 아니었다. 농

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을 꿈꿀 수 있어야 했다. 꿈뜰에서 쌓은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마을의 다양한 일터에서 일꾼이 되고, 마을 주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꿈뜰이 그리는 큰 그림이다.

마을일꾼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마을일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에 인근 다른 농장이나, 도서관 등 다양한 일터로 일주일씩 출근한다. 마을의 일터도 발달장애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서툴렀다.

“마을에 있는 일터들도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을도 이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공들인 터전을 잃고, 공유지를 향한 꿈을 키우다

2011년 풀무학교 실습지를 나와 인근 흥동면 팔괘리에 농지 300평을 임대해 꿈뜰만의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쌓일수록 팔괘리 농장은 아름다움을 더해갔다. ‘꿈이자라는뜰’이라고 적힌 나무로 만든 정문을 들어서면 서로 다른 향기를 머금은 허브들이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고, 발달장애청소년들이 텃밭 수업 시간에 그린 다양한 식물들과 활동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옹기종기 자라는 작물들 사이로 난 폭이 좁은 길을 걷거나, 농장에 마련된 벤치에 가만히 앉으면 힐링되는 느낌을 받는다. 마을의 여러 단체에서 일하는 젊은 활동가들은 가끔씩 꿈뜰 농장에 모여 갓 수확한 채소들로 점심식사를 준비해 나눠먹기도 했다. 그렇게 꿈뜰 농장은 마을정원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2011년 ‘꿈이자라는뜰 농장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허브데이’ 행사는 마을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자리다. 정원음악회, 책 읽는 정원, 고마운 정



꿈뜰의 팔괘리 옛 농장 모습. 식물들이 옹기종기 정갈하게 자라는 농장은 허브데이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을정원이자 축제장이 된다.

원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진행된 허브데이 행사를 통해 꿈뜰 농장은 농부만의 공간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확장됐다. 그 공간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꿈뜰은 여느 농장과 다르게 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길 바랐어요.”

2017년이 끝날 즈음 공동체 가꾸며 여러 추억이 켜켜이 쌓인 팔괘리 농장을 떠나야 했다. 보루는 “우리 땅이 아니라서, 땅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함께 짓는 농사가 다른 농장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는 없다.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땅심을 키우고, 마을정원처럼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낮은 생산성을 만회할 수 있다. 보루는 “퍼머컬처나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도 한 공간을 길게 집약적으로 꾸준히 바꿔나가야 가치가 축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 땅을 가져야 하는 건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컸어요. 비장애인 농부들도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잇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마련하는 건 더 어려운 현실이죠.”

농사뿐만 아니라 허브를 활용한 차나 향신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텃밭달력 농사일지>를 해마다 펴내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험하고 있지만,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결국 꿈뜰이 가진 공적인 가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꿈뜰 혼자 불가능하다면, 꿈뜰이 가진 공공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으면 된다. 꿈뜰만의 소유가 아닌, 마을이 함께 소유하고 향유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보루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지 읽기 모임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오서산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꿈틀의 새로운 농장이 자리 잡았다.

“저희가 농장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거라 믿어요. 그러니 십시일반으로 땅을 마련해서 여럿이 함께 공간을 향유하는 공유지(커먼즈)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18년 꿈틀은 팔괘리에서 운월리로 농장을 이전했다. 멀리 오서산이 바라보이는 낮은 언덕에 정원 같은 농장의 모습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빌린 땅이다. 마음씨 좋은 땅 주인을 만났지만 이 땅 역시 또 누군가에게 팔려 나갈 수도 있다. 땅 주인분에게는 만약 이 땅을 팔게 되면 꿈틀에 먼저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다. 꿈틀은 조금씩 공유지를 향한 꿈에 다가서고 있다. 새로 조성한 운월리 농장 바로 옆에 풀무학교 소유의 부지 일부를 꿈틀이 매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꿈틀은 2023년 9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설립인가를 기다리며 비영리 법인단체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장애의 경계를 넘어, ‘자기다움’을 찾는 일터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함께 하는 새로운 동료들이 늘었다. 2023년 여름 기준으

로 꿈틀 농장에는 장애일꾼 4명, 비장애일꾼 4명이 함께 일한다. 꿈틀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동일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똑같은 활동비를 받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건강하게 함께 일하는 문화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지키고 싶었던 원칙은 장애인을 위해서 비장애인이 희생하거나 소모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과, 이 공간 안에서는 누가 어떤 활동을 하든 자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억지로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장애인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엄연한 주체다.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저하된다. 하지만 우리는 ‘비장애인’이라는 정체성 속에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살아간다. 반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한다.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가진 장애를 주목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장애를 보면서 저의 장애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도만 달랐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특성이나 심각하게 모난 부분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소위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꿈틀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약한 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스투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가 되길 바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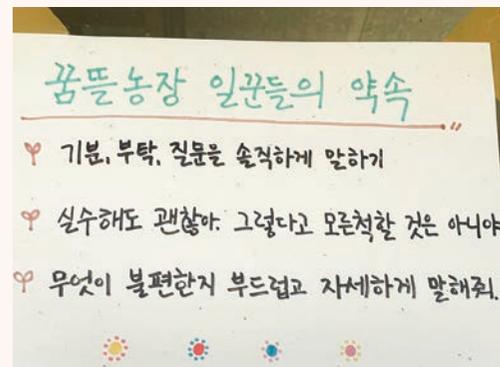


꿈틀에서 함께 하는 일꾼들

꿈뜰은 지난 14년간의 시간을 셋으로 나눈다. 시즌1이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터와 일터’였다면, 시즌2는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 장애와 함께 일하는 돌봄농장’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시즌3의 꿈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어울리고 배우는 농장’이다. 시즌2 시기에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에서 활동하다 복귀한 보루는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즌3에서 꿈뜰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새롭게 다듬었다. 바로 “농·촌(농사와 마을이라는 바탕 위)에서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익히며, 자기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좋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습관이 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나와 다른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고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한다.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꿈뜰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다양한 사람이 마주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정원을 꿈꾼다.

“혐오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해서 낯설어서 두려운



꿈뜰 농장 일꾼들의 약속



꿈뜰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정원을 꿈꾼다.

건데, 그건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요. 다양성이 수용되는 문화가 비장애인들에게도 건강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수용하면서 나도 수용받는 경험 같은 거요. 사실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꿈뜰이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을 함께 배워나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 꿈이자라는뜰 활동일지

2009년 9월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준비모임
2009년 10월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그리는 준비모임
2010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연간 텃밭+마을 교육과정 만들기
2010년	모종장, 염색 등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실험 시작
2011년 5월	꿈이자라는뜰 농장(팔괘리) 만들기 시작
2011년	꿈이자라는 농장들이_허브데이(매년 개최)
2014년~	<텃밭일지 농사달력> 펴냄, 2020년부터 「텃밭달력 농사일지」 새이름, 개정판(매년 발간)
2015년~	허브데이 정원음악회(2015), 책읽는정원(2016), 고마운정원(2017), 모두의정원(2018), 반가운정원(2019), 느긋한정원(2020), 이야기잇는정원(2021), 다시만나는정원(2022), 춤추는정원(2023)
2016년, 2017년	장애와 농업 심포지엄
2018년	농장 이전(팔괘리→운월리)
2022년 4월	‘장애+비장애 함께 읽고 함께 살다’ 도서 전시(밤맑도서관)
2023년 9월	꿈이자라는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지역 복지정책 시민운동의 주춧돌을 놓다

“퇴근하고 돌아가면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동거주 취약계층 가구들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서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던 것이  
그 좁은 공간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대로 느껴졌죠.”

아동주거권을 지역의제로 부각시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심하다. 이제는 에어컨이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전기 제품이 되었다. 하지만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감당해야 하는 집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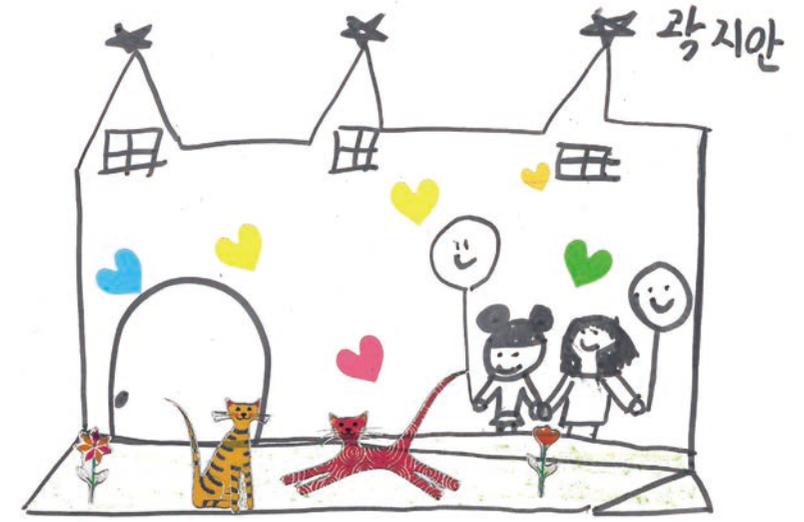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 약 45만 9000가구다. 아동 수 기준으로는 9.35%, 약 84만 8000명에 이른다. 특히 아동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이른바 ‘구조성능환경 미달 가구’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0.7%, 약 3만 7000가구로 조사되었다. 충남은 어떤가? 2019년 천안시주거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안시 주거 빈곤 가구는 9.3%로 전국 12.0%에 비해 낮다. 하지만 동남구 아동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0.6%로 전국 평균 9.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아동가구와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아동가구 역시 동남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빈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아동주거권’

코로나 이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아동에게 주거공간은 휴식, 수면, 식사, 놀이공간과 더불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세 달간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15가구를 직접 보호자와 아동을 일일이 면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었다.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한 이선영 복지세상 사무국장은 말한다.

“원래는 역할극을 통해 빈곤을 체험하는 빈곤시물레이션을 도입해서 펀딩도 하고 확산시키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힘들게 된 거예요. 다들 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동주거’라는 주제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됐죠.”

조사한 15가구 중 5가구가 최저가구 기준에 미달되었고, 10가구는 월세가구



캠페인에서 한 어린이가 그린 '내가 살고 싶은 집'

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아 월세를 신용결제하기도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참여자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나 월세를 내는 데 보태고 있었지만 주거급여가 더 나은 주거로 이전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집수리, 정리정돈 서비스, 물품 지원, 현금 지원(보증금,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등이었다.

“직접 만나 보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퇴근하고 돌아가면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동거주 취약계층 가구들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권에서 구성원 당 방의 평수, 이성간의 분리, 채광, 습도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문서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던 것이 그 좁은 공간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대로 느껴졌죠.”

가장 필요한 지원이 빨래건조기라는 가정이 있었다. 어린이집 친구가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는 빨래방 가서 말리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였다.



2022년에 실시한 아동주거조사 사진1.  
공간이 부족해 빨래가 마를 틈이 없는 한 가정

“말로 들었으면 별로 와 닿지 않았을 텐데 직접 가서 보니까 집 자체가 너무 좁고 베란다에 온통 빨래라 마를 틈도 없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 정리정돈도 엄두를 못 내고요.”

선영 씨는 아동이 주거에 대해 바라는 점이 없거나 현재 만족한다는 말에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더라는 경험도 전했다.

“일곱 살 아이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집에 사는 게 오히려 운동 되고 좋다고 했어요. 혼자만의 방이 있다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거실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좋대요. 알고 보니 그 전 집에서는 곰팡이가 많아서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예전 집에 비해선 이 집이 훨씬 좋다는 거였죠. 다른 주거에 대한 경험



2022년에 실시한 아동주거조사 사진2.  
비좁은 집 벽에 그려져 있는 아이의 그림

도 없고요.”

복지세상은 조사를 바탕으로 천안의 아파트 벼룩시장에서 ‘내 방이 있는 집’이라는 주제로 아동주거권 캠페인을 가졌다. 아동포함가구에 기존 지원액의 30%를 추가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단계적 확대해 가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천안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일반 가구도 지원해 주나요?’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아동 돌봄 공간의 필요성에는 공감이었다.

천안시 아동주거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는 “복지국가의 네 기둥은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거이다. 주택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매우 비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었다”며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우 교수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거주용으로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집주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곳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난감한 현실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세상은 앞으로 예산 배정의 문제, 아동주거급여 선정의 문제 등 넘어야



2023년 5월 13일에 실시한 아동주거 보장강화를 위한 시민공감참여캠페인

할 산이 많지만 주거비의 30%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기 위해 노력해 갈 예정이다.

### 지역 복지의제 발굴, 단체 인큐베이팅까지 도맡아

복지세상이 생긴 건 1998년이지만 전신은 1993년에 설립된 천안YMCA다. 활동가들의 열띤 토론 끝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모토로 환경과 복지 의제로 새



2001년 사랑의 밑반찬 나눔. 복지세상에서 인큐베이팅하여 노인복지건강센터로 발전했다.

로운 단체를 꾸린 것이 바로 천안녹색소비자연대와 복지세상이었다.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1998년에 아이엠에프(IMF)가 터지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결식아동도 생겼어요. 노인실태 조사를 했더니 간장종지 하나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들의 사회인식이 단체에 녹여진 거죠.”

그렇게 생긴 복지세상은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의 복지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회와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자 등을 조직해서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방과후 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했고, 이것이 발전해 지역아동센터가 됐다.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밑반찬 봉사서비스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 노인복지건강센터 ‘느티나무’를 만들었다.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이 서로 만나 고민도 나누고 교육을 받으며, 천안아산발달장애부모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후 충남장애인부모회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제 25년이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복지의제 단체이자 천안시 복지정책의 명실상부한 민간 파트너가 됐다. 지역 대학, 병원,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며 후원자수는 500여 명으로 지역의 40~50대 여성이 중심을 이룬다. 후원 회원들을

위한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프로그램 운영도 꼼꼼하게 이뤄진다.

복지세상의 역사를 훑히 꿰고 있는 이선영 사무국장은 2003년 초반에 입사했다. 첫 직장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던 이 사무국장은 복지단체 실습을 하며 시민단체 활동이 더 맞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복지세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8여 년을 일하고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후 이직해 다른 경력을 쌓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커리어를 가져야 하지 않나 고민했었죠. 가지고 있던 능력은 소진됐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서울의 복지관으로 가보게 됐죠.”

큰 기관에서 일하면서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 그는 다시 복지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2015년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30주년 행사 준비는 안 해야죠”라고 농담을 하지만 대학원에도 진학해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선영 씨는 최근 다른 곳에 가서 지역복지 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 ‘지역도 알겠고 복지도 알겠는데 운동은 뭘까요?’

“운동이란 말 그대로 멈춰 있지 않은 거잖아요? 방향을 바라고 계속 움직이려 하는 것이 운동 같아요. 여기서 간사의 역할은 화살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반보 앞을 제시하고 함께 가되 독려하는 거죠.”

### 민관학 협력으로 인권조례 제정 10년 만에 개정

복지세상은 2022년부터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를 조직해 9개 지역 복지 단체 및 기관을 모으고 사무국 역할도 해왔다. 복지는 응당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인권조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그 결과 2023년 3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전면 개정됐다.

“그전 인권조례도 복지세상이 10년 전 간담회를 열면서 만들었지만 실효성을



2023년 5월 19일 아동주거보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가 시의회 주최로 열린 모습

거두지 못했거든요. 개정된 조례에는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어요. 또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죠.”

행정도 조례 개정에 발맞춰 예산 편성과 인권 보호관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인권 조례와 비교분석 스테디를 하고 시의원, 행정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항목 하나하나씩 같이 들어가면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치가 해결하는 부분이 신선했어요.”

천안인권네트워크가 조직된 지 불과 1년 만의 성과였다. 충남도의 인권조례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빨리 나왔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선영 사무국장

“복지세상을 비롯한 지역 네트워크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복지세상 회원은 물론 연대 단체 회원들 수백, 수천 명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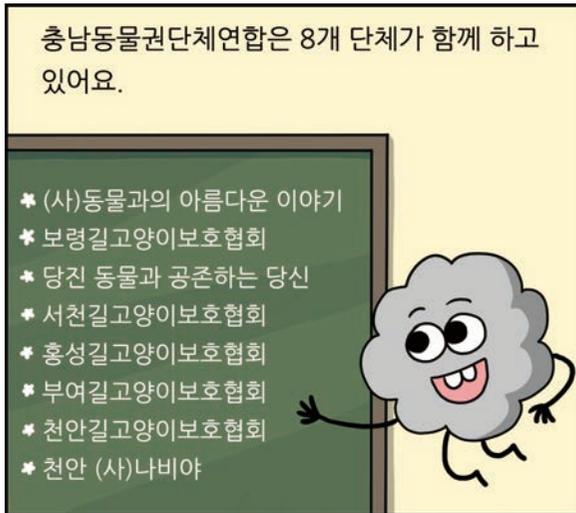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활동일지

2022년 4월, 9월	천안시 아동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
2022년 5월	아동의 적정주거기준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천안시장 선거 후보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 공유
2022년 7월~10월	천안지역 아동주거 빈곤가구 개별 심층 면접
2022년 10월	천안시 인권보장 제도화와 인권의 지역화 방향 모색을 위한 민관 간담회
2022년 11월	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2년 12월	천안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논의
2023년 2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
2023년 3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2023년 4월	천안시 아동주거 보장강화를 위한 시민공감 참여캠페인

##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구조한 길냥이를 키우다 고양이의 매력에 빠졌어요.  
이제는 야생동물까지도 아우르면서 동물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뭔가 해야 할 영역이 커지고, 책임감과 결의가  
더해진 느낌이 들었죠.”

유기동물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힘쓰는  
충남동물권단체연합





충남동물권단체연합 이경미 대표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00만 명이다. 4명 중 한 사람은 동물을 키운다는 이야기다. 반려동물 인구를 위해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동반 카페, 캠핑, 펜션 등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들의 삶은 어떨까? 1년에 파양하는 동물들이 10만 마리가 넘고 입양되어 한 가정에서 목숨을 다하는 확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분양가게에서 돈만 있으면 동물을 살 수 있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 몸집이 커진 동물들은 번식장으로 팔려간다.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농장의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이런 동물들의 학대 실태를 고발하고 구조하며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곳이 충남동물권단체연합이다.

### 10여 년 동안 안락사 없이 8,000여 마리 구조

“구조를 결정할 때는 이후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 아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니까.”

이경미 충남동물권단체연합 대표는 원래 의류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0년 얼결에 구조한 길냥이를 키우게 됐고 둘째, 셋째 길냥이를 들이며 고양이의 매력에 빠졌다. 천안에서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캣맘’ 활동을 하게 됐고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이하 ‘시보호소’) 자원봉사도 하게 됐다. 시보호소 운영에 문제를 느낀 이 대표는 직접 자격조건을 갖추고 2013년부터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 받았다. 이 대표가 있는 동안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 최초의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됐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보통 3주면 안락사를 하지만 천안시 보호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자 펄렛,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까지 전국의 온갖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모여들었고 그 수는 1년에 1,200여 마리가 넘을 정도였다. 2017년 이경미 대표는 그간의 공로로 농

림축산식품부 주최 제2회 대한민국 동물보호대상도 받았다.

2018년 시보호소 일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사단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운영한다. 후원금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에 신경을 쏟느니 내가 일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게 편하다는 이 대표는 청소 용역, 보험 영업, 실내골프장 실장 등 쓰리잡을 뚫는다. 유기견 40여 마리는 천안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잇츠독’이라는 입양카페에서 돌보고 유기묘 60마리는 유기묘 입양센터에서 돌본다. 유기묘 입양센터는 도심재개발로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해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외면하지 못한다. 구조한 유기동물은 회원들과 스텝들이 다 같이 돌본다. 잇츠독은 수익을 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입양센터 스텝들은 이 대표를 포함해 5명이다.

“제가 캣맘, 시보호소 6년, 사단법인 8년 하면서 그동안 구조한 동물들이 8,000마리는 돼요. 제가 정말 인복은 많아요. 우리 스텝이나 이사님들 모두 ‘소장님이 판단하고 구조한 아이니까’ 하고 다 받아줘요. 그런데 정말 안락사 없이 다 입양을 보냈어요. 선천적으로 발을 못 쓰는 아이, 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까지도요. 정말 운이 좋았죠.”

언론이나 SNS로 구조사연이 소개되어 이용중 소장 같은 유명인에게 입양되는가 하면 해외입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입양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보낼 수는 없다. 여러 번 센터로 오게 해 입양자의 태도를 살피고 입양처의 환경을 고려한 다음 각서를 쓰고서야 입양을 보낸다.

이 대표는 독일의 ‘티어하임’이라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소개했다. 민관이 협력해서 번식장이나 무분별한 분양제도를 없애고 안락사 없이 충분한 공간 속에서 돌보다가 입양을 보내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사설 보호소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건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잖아요?”



2023년 2월 26일 홍성 충남도서관에서 모임. 충남동물권단체연합은 매주 마지막 주 주말마다 시군을 돌며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을 함께 공부했다.

### 구조 활동에서 시스템 개선으로

이 대표는 유기동물 구조활동을 하면 할수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걸 느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6년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동물학대 반대 집회에 매일 참석했어요. 피켓 시위에도 참여했는데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죠.”

동물학대도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지만 입증책임은 고발자에게 있다. 대한민국 가축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수의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다. 개장수가 ‘개사요~’ 하고 돌아다니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개장수가 조그만 케이지에 개를 싣고 다니는 건 불법일 수 있다.

“현장에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사람 손을 한 번 탄 고양이는 길고양이와 달리 길에서 살 수 없어요. 실내 소형견으로 키워지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건 정말 몰라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리고 법을 바꾸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표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에서 동물권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 개식용업자도 보신탕집도 많은 지역이 충남이다. 그런 충남에서 이런 단체연합이 생긴 것은 다소 놀랍다. 전국 길고양이협회, 전국 동물보호연대처럼 전국 단체의 지부 성격을 갖는 경우는 있어도 권역에서 다양한 단체가 연대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계기는 이 대표가 운영하던 시보호소를 접게 된 사건이 한몫했다.

“제가 시보호소 동물을 빼돌려 부정수급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8개월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죠. 길에서 돌아다니던 돼지를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와 보호한 적이 있는데 지인의 가족이 목장을 한다기에 입장을 보냈어요. 절대 팔거나 잡아먹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서 보냈고 목장을 누비며 염소몰이를 하며 지내다가 수명을 다해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돼지를 아는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혹을 관계자에게 전화하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죠.”

긴긴 조사 끝에 결국 검찰에서 ‘범죄없음’으로 끝났지만 동물관에 환멸을 느낀 그는 모두 그만두고 싶었다. 그때 전부터 알고 지낸 홍성 길고양이협회 임소영 대표가 충남에 동물을 내세워 이익을 취하려는 단체나 개인이 함부로 들어설 수 없게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년 홍성 길고양이보호협회 임소영 대표와 함



2023년 3월 25일 천안에서 열린 월례 세미나. 이날은 충남도 시군별 동물보호 조례에 대해 함께 공부했다.

께 다른 시군의 단체 설립을 도우며 연합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뜻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자기주장도 강하고 활동 영역도 다양하거든요.”

식용농장의 개만 대상으로 하거나 번식장의 개들만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소형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도 아주 다르다.

“적어도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각자 힘든 거 알아봐주기만 하자고 했어요.



2022년 6월 26일 보령에서 충남수의사회 소속 동물의료봉사단의 협조로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모습. 이날 10명의 수의사들이 150여 마리 동물들을 진료했다.

너무 고생한다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기로요.”

2020년 준비위원회를 시작해 2022년 5월 부여에서 창립총회를 거쳤다. 12개 서산, 보령, 아산의 개보호 단체들도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고양이단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참여단체들의 보호대상인 개고양이로 한정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임소영 대표의 제안으로 ‘동물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야생동물까지도 아우르고 동물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뭔가 해야 할 영역이 커지고, 책임감과 결의가 더해진 느낌이 들었죠.”

이 대표가 말하는 동물권은 ‘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다. “동물들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유기동물 중에선 버려진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도 많이 봤어요. 그런 동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생태통로를 만들어준다고 동물들이 알아서 이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 고통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죠.”

충남동물권단체연합은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시군을 돌며 월례 세미나를 열고 있다. 특정 동물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동물보호법, 지역 조례 제정을 위한 공부도 함께 하고 현안도 의논한다. 현재 충남의 7개 시군에는 동물보호조례가 없다. 강동구, 세종시 등의 조례들을 참조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반려인 놀이터, 급식소 운영 비용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수의사협회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활동을 진행한 것도 보람된 일이었다.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난 2022년에는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 동물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필요

이들은 특정정당이 아닌 동물권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가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2022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물권 관련 정책

질의를 했으며 도지사 면담도 준비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크게 반려동물 공공화 장터 설립, 마당개 중성화사업 확대,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 설치, 반려동물 입양 지원센터 설립 등 크게 4가지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매장은 불법이고 화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 마리를 화장하려면 소형견 기준 30만 원이 든다. 최근에는 업체에서 화장비용만 받고 야산에 폐기해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의 장례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

마당개 중성화사업 확대도 중요하다. “한 마리가 10~12마리씩 낳아요. 몇 마리는 키우다 개장수가 오면 팔고 그런 게 관례로 되어 있어요. 개도 발정나면 고통이 엄청나다고 해요. 나가면 유기견이 되거나 들개가 되는데 그러면 포획사살하는 데만 마리당 50만 원을 줍니다.”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시골은 도시와 달리 천천히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먼저 개를 잡아먹지 말자는 인식으로 바뀌야 해요. 최근에 부여를 갔는데 부여군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고팔면 불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법이 되면 또 금방 수공을 하시거든요. 이런 데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희열을 느껴요.”

이 대표는 동물보호단체를 향한 시선들에 대해 당부한다.

“차라리 동물에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학대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동물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동물에게 가는 것 같고요. 이해할 수 없으면 배척하는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외국인, 장애인, 어린이 등등 약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동물보호단체도 그런 분야의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동물권 연합 활동일지

2022년 5월	충남동물권연합 창립총회
2022년 5월	동물복지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들 정책질의서 발송
2022년	강릉산불 야생동물 구조
2023년	충남수의사협회와 유기동물 무료 검진 활동
2023년 1월	‘동물보호법’ 세미나
2023년 3월	‘충남도 및 시군 동물보호조례’ 세미나
2023년 4월	‘충남수의사협회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의 날’ 참여

# 농촌이 살아남는 법



살만한 농촌을 위해 법·제도를 바꾸는 싸움  
개발자본으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060

평생 살아가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마을돌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산리 아리랑돌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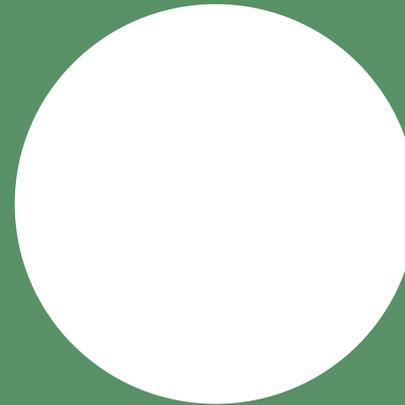
072

삶·생명·생산의 주인 '여성농민'  
고된 농촌살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논산시여성농민회

082

청년들의 예술활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다  
화합의 시민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부여안다

094



## 살만한 농촌을 위해 법·제도를 바꾸는 싸움

“사회적으로 농촌에 대한 위기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농촌 주민은 소수자가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개발자본으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촌을 떠올리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른 모습이다. 자본을 앞세워 호시탐탐 농지를 개발하고, 도시에서 밀려난 각종 위해시설들이 농촌으로 몰려온다. 자연과 농지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개발 세력 간의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 자본과의 싸움을 치르기에 주민들 노력만으로는 힘겹다. 결국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다.

2013년부터 충남을 오가며 청양군 강정리, 홍성군 갈산면, 서산 등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응하던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 홍성에 정착했다. 농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톺다 보니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개소식

“비슷한 사안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들어가 보면 법·제도적 문제가 있어요. 한 지역의 경험이 다른 지역의 경험에 참고할 사안이 많은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채 개별화, 고립화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연대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때쯤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1년 4월 24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사무실을 열고, 하승수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농본은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한 비영리 단체다. △농촌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주민운동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 △농지 문제와 농촌주택 등의 해결 방안 △농촌과 농민, 농업 관련 예산과 정책 감시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공으로 전환해야

전국의 여러 지역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 농본에서 발행한 정책브리핑집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46개에 달하며 그중 지방일반산업단지가 690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특히 최근 들어 사모펀드가 대기업과 함께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SK가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충남 서산 대산읍, 아산, 예산 신암면 등이 산업단지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지역이다.

홍성군 갈산면, 예산군 대술면, 청양군 비봉면 등에 추진된 매립장은 백지화되었다. 이곳은 모두 산업단지과 무관하게 매립장만 들어오려고 했던 경우로, 주민들이 뚝뚝 뭉쳐 반대하자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용했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업체에 위탁하지만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요. 음식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모두요.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수집, 운반, 매립까지 전부 민간이 담당하죠.”

산업폐기물은 구역 제한이 없다. 한 지역에 매립장이 설치되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몰려온다.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어 불법투기 감시를 할 수 있는 반면, 산업폐기물은 이런 감시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민간업체에 맡겨놓고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민간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변화가 필요한 거죠. 업체가 무분별하게 아무 곳이나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하도록 전환해야 해요. 공공이 안전하게 매립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 이야기가 상식적인 거죠.”

농본은 2023년 4월 12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충남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예산, 천안, 논산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포럼

추진 중인 4개 산업단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과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농본 장정우 사무국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농촌에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강제수용 규정 삭제, 산업폐기물 국가 책임제 실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본은 6월 12일 전북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전북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장 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를, 이어 ‘전국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11월에 개최했다.



전북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를 살피고 있는 박은식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왼쪽)과 하승수 대표(오른쪽)

## 실거주민 동의 없는 농지개발 ... 농지 전수조사 필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다. 부동산 가치로서의 땅 투기와 상속 등으로 인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부재지주’라 하는데, 이 문제도 농지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 대표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소유하는 토지는 15% 정도며 나머지는 부재지주 소유이거나 일부 종중(문중)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한다.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부재지주가 토지를 팔아버리면 농사지을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 의견

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인 셈이죠. 부재지주 비율이 높아지고 거기에 투기까지 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죠. 국회의원 300명을 샘플로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죠.”

농본은 2021년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 실태를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6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농지법상 필수 조항인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2021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 농지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개정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해 처벌·제재하고, 최소한 그런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번 농지조사를 통해 언론에서도 사법부 고위 법관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농지조사가 정착되는 추세여서 감시가 좀 용이해졌다”며 “모든 문제가 법·제도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 “주민들도 법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잘못된 생각을 알리고 정치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

선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나 농촌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하 대표는 이를 ‘사회경제적 정의의 문제’라고도 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피해를 농촌 주민들이 받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자본과 대기업이 챙기죠. 농촌 곳곳이 대장동이라고 보면 돼요.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면서 이윤을 챙기기에 눈먼 자본을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농본 활동 3년 차를 맞으며 전국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전국에서 농본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고립적으로 활동한 지역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거죠. 이제는 주민들도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공무원보다 내용도 더 많이 아시고 대안이 뭔지도 알아요. 주민들의 그런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죠.”

산업폐기물 문제와 함께 태양광, 송전탑, 채석장, 발전소 등의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하 대표는 농촌이 왜 중요한지, 농촌이라는 공간을 지키는 일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농촌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의식 자체가 수도권 중심이에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만 해도 ‘매립장을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도시는 안 되고 농촌은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농촌 주민은 소수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점이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촌 현실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

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더구나 기업들도 고령층만 거주하는 지역을 골라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고령층만 회유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기존의 농민운동이 농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농본은 농촌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농촌이 살만해져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그 공간을 지키고 그 기반을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크게 두 축인데, 하나는 현안 지원이고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기획사업이에요.”

단체 운영은 거의 대부분 후원으로 이뤄진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기획사업은 민간재단에서 지원받아 진행한다. 농본 활동 자체가 지자체나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우는 일이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다. 농본은 현재 하 대표를 비롯해 장정우 사무국장, 김형수 정책팀장, 문수영 홍보기획팀장 등 4명이 활동한다. 농본에서는 풀타임 근무가 아닌 유연한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농본에서 맡은 현안을 챙기고, 각자 농사 외의 다양한 활동도 한다.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지역 농촌피해 현안 토론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농사도 짓고,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일도 하는 거죠. 도시보다 주거비용도 줄어요. 물론 집 구하기가 어렵지만요. 출퇴근 시간도 도시보다 좋고,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니 관계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죠. 농본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죠. 하지만 농촌의 장점을 살려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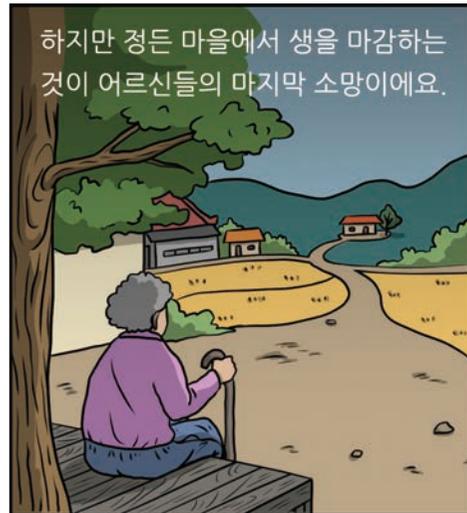
### 농본 활동일지

- 2021년 4월 공익법률센터 농본 개소식
- 2021년 8월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 2021년 12월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참여
- 2022년 1월 농본 정책브리핑 2, 3호 발행
- 2022년 4월 농본 개소 1주년 기념행사
- 2022년 6월 한전 송전선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 2022년 8월 충북 진천 이월면 관지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지원
- 2022년 9월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에 대한 토론회
- 2022년 12월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포럼 참여
- 2023년 4월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
- 2023년 6월 전북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

## 평생 살아가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절망감은 생각 외로 엄청 커요. 어느 마을이든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 어르신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마을돌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산리 아리랑돌봄공동체





예산군 시산리 아리랑돌봄공동체 강희진 대표

농촌 마을이 늙어가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노인 인구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순으로 전국에서 충남이 다섯 번째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전체 인구 7만8768명 중 노인 인구는 2만644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한다. 독거노인은 6,418명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동홈,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자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등급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노화로 홀로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전가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그만둘 수 없으니 부모를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다. 노인 당사자는 살던 집과 마을, 친구들을 떠나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래저래 어려운 일인 것이다.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서는 독거노인 돌봄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하고 있다.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아리랑돌봄공동체 강희진 대표는 “요양시설이 5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이분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하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절망감은 생각 외로 엄청 크다”고 전했다.

### 주민들과 살던 곳에서 함께, 재미있게

강희진 대표의 모친은 지난 2022년 살고 있던 집에서 10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생전 모친의 소원은 당신 방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다. 모든 노인들의 소원이기도 하다.

“사는 집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살던 동네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분들 삶의 질은 급격하게 저하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 대한 끈이 끊어지기 전까지 보호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마을과 집, 가족에 대한 애정을 지닌 채 가는 건 중요하죠.”

예산군 시산리는 78가구 151명이 거주하며 이 중 실거주 독거노인은 13명이다(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통계). 진주강씨와 인동장씨 집성촌이기도 한 시산리



아리랑돌봄센터 전경

는 수양단풍나무 접목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한때 접목하는 기술자인 접사가 20 명이 넘을 정도였다.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실제 접사를 다닐 수 있는 이는 5명 내외다. 지금도 빨간색 단풍나무로 마을 곳곳이 물들어 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골절 사고를 당했다. 돌봄 사람이 없어 자식들 권유에 따라 요양원에 들어갔다. 시설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깜짝 놀란 자식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와 자식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혼자 계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걱정과 시설에 누워 무료함을 견디는 일은 싫다는 할아버지.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바로 닥쳐올 가족의



시산리 마을회관과 마을기념관 전경

일이며, 나의 일이기도 했다. 마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돌봄의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 송전탑을 세우면서 한전에서 받는 기금이 있어요. 다른 마을은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우리 마을은 돈을 쓸 줄 모르니까 10년 동안 적체된 상황이었어요. 그 돈으로 땅을 산 거죠. 그런데 그 땅은 복지시설을 갖출 요건이 안 되어 땅을 팔고 지금 이 땅을 샀어요. 땅이 있으니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돌봄 기반 다져

시산리는 마을회를 중심으로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 2019년 마을대학과 마을리더양성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부터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절기야 놀자’ 축제를 비롯해 2019년부터 ‘아리랑꿀단지’, ‘꿈꾸는 뜨개질’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왔다. 당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기도 했던 강 대표는 시산리아리랑돌봄공동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충남도민참여예산제에 자치요양시설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했다. 2022년 5월 사업에 선정, 그해 10월 26일 돌봄센터 시설을 완공했다.

돌봄센터는 1층 200㎡ 규모로 건강회복실, 주방, 아리랑사랑방 등이 있다. 마을 노인 중 80대 이상 노인 7명이 매주 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심 식사를 한다.

“처음에는 상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해. 직원도 되야 하고 상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요. 더구나 어르신들이 집을 잊지 못해, 상주도 심고 소일하며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감상적으로 접근했지만 제도나 법, 책임이 조여오면서 자꾸 포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마을 노인을 돌보는 주체는 마을주민들이다. 마을리더양성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프로그램 강사 등을 배출해 현재 8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다. 손 근육 활동을 위한 색칠 공부를 지도하는 마을주민 김영숙 강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영숙 강사는 “저도 곧 육십 대인데 지금 어르신들 모습이 저의 미래”라며 “마을 어르신들과 마을에서 재미있게,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죠”라고 말한다.

강희진 대표는 “어느 마을이나 인력은 충분히 있지만 다만 마을에서 활용하지 못할 뿐”이라며 “마을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마을 어르신을 이웃이 모신다는 강점을 활용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 돌봄은 마을자치의 핵심

시산리 주민조직은 주민자치회, 시산리아리랑공동체,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는 행복마을만들기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영농조합법인은 한전 송전탑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시산리아리랑공동체는 마을 내 동아리 활동과 돌봄센터 업무를 보는 협동조합이다. 강희진 대표는 시산리아리랑공동체의 목표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마을자치의 핵심이 돌봄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회에서는 문화를, 공동체에서는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2022년에 마을회관 옆 창고를 리모델링해 극장과 박물관을 만들어 시산리 영화제도 열었어요. 지금 센터 옆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구 마을회관은 온전히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 센터는 돌봄 공간으로 집중되는 거죠.”



아리랑돌봄센터에 오는 마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

현재 돌봄센터 운영은 후원 등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시산리아리랑공동체는 자급자족 마을 케어 실현을 위해 3R 귀향 운동을 하고 있다. ‘다시 타이어를 끼고(Re-Tire), 시산리에 돌아와서(Re-Turn), 새로운 삶을 살자(Re-Live)’가 그것이다. 돌봄센터 뒤편 토지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설립해 귀향인과 시골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그들의 노후를 센터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전제다. 더불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농장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입구 수양단풍마을 표지판

척들 간처럼 허물없이 지나다 보면 질서가 없게 된다. 센터는 현재 강희진 대표가 관리자가 되어 규칙을 만들었다.

“마을의 완결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예전에는 초상이 나가거나 구들 놓을 때도 전부 마을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하잖아요. 작년에 출향인들 모시고 어죽 끓여 먹는 행사를 처음 했어요. 반응이 있으니 기대해 봐야죠.”

돌봄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산리는 집성촌이다. 마을 사람들 서로가 동서지간이고, 아우며 형님이다. 센터에서 가족이나 친

“공동홈이 실패한 이유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공동홈에서는 이장이 관리하지만 책임은 안 져요. 우리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시설장과 아리랑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센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강사들도 이에 동의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불편해져요.”

돌봄센터는 코로나 시기에도 운영이 중단된 적은 없다. 이용자나 종사자 모두 외부에 갔다 오면 검사와 자가격리를 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 편하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일 조심해서 하자고 서로를 응원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조심한 결과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했다.

“해야 하니까 한 거죠. 어느 마을이든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 돌봄이예요. 어찌면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그보다 체계가 갖춰진 것이죠. 아직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지만 인간은 늘 사람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혈색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또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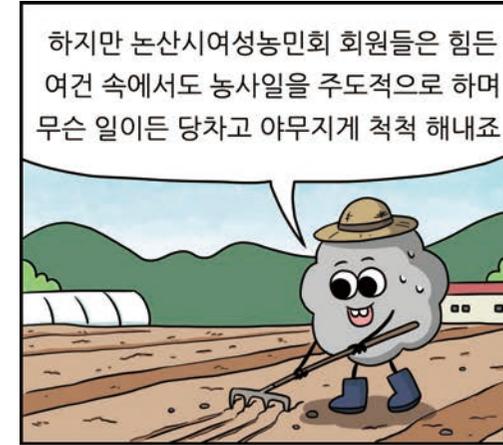
### 시산리 아리랑돌봄 공동체 활동일지

2020년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꿀단지 오카리나 동아리
2021년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현장포럼
2022년 4월	시산리아리랑돌봄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2022년 5월	충남도민참여예산제 자치요양시설기반 구축사업 선정
2022년 10월	마을돌봄센터 완공
2022년 10월	시산리마을영화제

## 삶·생명·생산의 주인 '여성농민'

“회원들이 ‘여성농민회는 재미있고 사람들이 따뜻한 것도 좋지만, 여기 오면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이 모토인 만큼 여성농민회는 남달라요.”

고된 농촌살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논산시여성농민회**





2017년 10월 20일 논산시여성농민회 창립식

농촌 풍경은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삶은 고달프다. 농부는 절기와 작물의 상태에 따라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한창 바쁠 땐 몸이 아프다고 쉬지도 못한다. 때를 놓쳤다가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 농촌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쁘고 고된 농사일은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사일은 기본이고, 집안일을 도맡고,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들 돌봄까지 책임지다 보면 자신의 삶을 챙기기도 힘들다. 하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성농민들은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며 무슨 일이든 당차고 야무지게 척척 해낸다.

“여성 농민들은 농촌 내에서도 약자잖아요. 농촌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도 심

하죠. 여성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여성농민 스스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여성농민회입니다.”

### 여성농민들이 모이자 에너지가 넘쳤다

이렇게 설명하는 유화영 씨는 논산시여성농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5년 동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중앙에서 상근활동을 하던 화영 씨는 농촌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논산으로 귀농했다.

논산에서 여러 여성농민들을 만났다.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는 분들이었다. 낯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만, 여성 농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위로를 얻는다. 팍팍한 농촌살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

“논산시여성농민회 회원 분 중에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사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다른 회원 분들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마다 밥을 해줘요. 우리 회원들은 그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힐링이 돼요. 함께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성농민회에 오면 내가 대게 존중받는 느낌’이라고요. ‘내가 이 밥 때문에 모임에 나온다’는 회원도 있어요.”

그는 “이런 모습이 논산시여성농민회의 자랑인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여성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거창한 목적이 있지만,



논산시여성농민회 유화영 부회장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논산시 여성농민 사랑방

일상에서 서로를 챙기면서 힘을 얻고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여성농민들이 모이기만 했을 뿐인데 시너지가 대단했다. 첫 모임부터 단체 창립까지 일사천리였다. 단체 창립 전부터 ‘논산시 여성농민사랑방’을 열어 학습도 하

고, 공동체 놀이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며 친분을 쌓았다. 2016년 겨울, 8명으로 시작한 준비모임은 2017년 10월 20일 창립총회 때 회원이 40명으로 늘어났다.

“준비모임에 참여한 8명 모두 크든 작든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함께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독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빨리 창립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창립 행사도 논산의 농업 관련 다양한 분들 100명을 초대해서 다과상을 차려 놓고 축하공연도 하고, 잔치처럼 치렀다. 그는 “그때 다들 정말 신났던 것 같다”며 “우리를 위한 조직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런 에너지가 창립 행사장에 퍼지면서 창립총회 당일 함께 하고 싶다면 현장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었다.

### 여성이 행복하게 농사짓는 농촌을 위하여

논산시여성농민회는 농촌에서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여러 활동 중 ‘여성농민 영농여건 개선교육’은 논산의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논산시여성농민회는 2022년부터 논산의 마을을 찾아가 ‘여성농민 영농여건 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경영주(농가경영체) 등록 △여성농민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제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여성농민 특화 건강검진 사업 등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농촌 현장에 살아가는 여성농민들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논산시여성농민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소개뿐만 아니라, 고된 농사일로 자신의 몸을 챙기지 못하는 여성농민을 위해 운동과 스트레칭도 함께 하고, 농사를 덜 힘들게 하는 편이장비 농기구를 소개하기도 해 여성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유 부회장은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주면 아무도 몰랐다면, 진작 알았으면 이용했을 텐데 이제 알아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마을에 들어가 여성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원활하지는 않았다. 사업 초기 이장단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남성이장이라 크게 관



논산시여성농민회는 마을을 찾아가 여성농민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펼친다.

심을 두지 않았다.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이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정책을 여성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겨우 부녀회장님들을 통해 마을에 들어가 교육을 진행했어요. 실제로 여성농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이제는 이장님들이 바로 일정을 잡아주시고 마을 방송도 해주세요.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앉아서 다 듣는 남성이장님도 계셨는데요. 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여성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요. 그 이장님이 이장단협의회에서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말씀 잘해주시면서 요즘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지난해와 올해 논산의 농촌 마을 95곳을 방문해 ‘여성농민 영농여건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후에 논산시여성농민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생겼다. 특히 기존 논산시여성농민회 회원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험이였다.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만 해왔던 여성농민들이 마을을 찾아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사로 서게 된 것이다.

“마을에 들어가서 교육하시는 회원 분들도 직접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이세요.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스로 풍부하게 아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니까 참 좋다’고 말하는 회원 분들이 많아요.”

## 토종씨앗을 물려받고 지키는 일

논산시여성농민회는 5년째 토종씨앗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개 면씩 집집마다 찾아가 토종씨앗을 조사하고 기록해 책으로 발간한다. 토종씨앗은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일이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옛말

도 있다. 회원들도 자신의 일처럼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꼼꼼히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한 분이 10가지 이상의 토종 씨앗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보물창고 같은 분이신데, 신문지와 편지봉투에 고이 담아둔 토종씨앗을 꺼내 이걸 무슨 씨앗이고, 이걸 어떻게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신나게 설명해주시기도 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를 이어온 토종 씨앗이 있는지 묻고 기증받는다. 이렇게 얻은 토종씨앗은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통해 씨앗으로, 음식으로 전시하기도 하는 등 토종씨앗이 더욱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부터 논산한살림과 연대해 소비자들이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토종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로 나눠드렸다. 앞으로는 시민공원으로 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토종 모종을 나눔 계획이다.

“우리가 찾아가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씨앗이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이 있냐’며 ‘이 씨앗 갖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좀 나눠주고 꼭 좀 지켜줘’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도 너무 힘을 받죠.”

유 부회장은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로부터 기증받은 토종씨앗들.  
토종씨앗이 더욱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토종씨앗 공부를 위해 여러 지역의 재종포를 견학했다.



논산시여성농민회는 매월 모임 때마다 학습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같은 곳에 몇 만종의 종자가 있다고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것이 변하는데,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들을 나중에 심었을 때 제대로 싹을 틔울지 걱정"이라며 "어쨌든 종자는 농민들 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토종씨앗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아서 지켜야 되겠다,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나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농민

농사일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느라 바쁘지만, 논산시여성농민회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매월 정기모임 때마다 ‘10분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새해 농업 예산안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여성농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살림하고 농사짓고 살다 보면 내 앞만 보기 쉽죠. 이 사회를 폭넓게 바라보

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하고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공부하는 여성농민이 아름답다. 공부하는 여성 농민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여행을 떠날 때도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남해에 갔을 때는 여성농민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우리는 아직 철기시대에 산다」의 구점숙 작가를 만나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고, 군산에서는 근대문화와 일제 강점기에 수탈 당했던 평야를 둘러보는 역사기행으로 진행했다. 사실 농촌의 여러 단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역사문화, 인문학 기행은 농촌에서 여성농민들이 접하기 힘든 경험이다.

“회원들이 ‘여성농민회는 재미있고 사람들이 따뜻한 것도 좋지만, 여기 오면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논산시여성농민회 권태옥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이 모토인 만큼 여성농민회는 남다르다고요.”

논산시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들에게 농사짓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농사짓느라 힘들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도 한다.

“창립 전에 준비모임 할 때마다 시 한 편을 함께 읽었어요. 지금은 농사짓는 여성이지만 학창 시절 때 문학소녀 아닌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키우고 농사짓고 살면서 그런 감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모임 때 시낭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새해에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소망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대학생 때 농활 왔던 곳으로 귀농한 한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역사, 인문학 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논산시여성농민회 회원들

했다. “해가 바뀌면서 나의 소망, 올해의 목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다.” 유 부회장은 “일상에 치여 살면서 잃었던 자신을 여성농민회에서 다시 찾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회장은 회원들의 활동 소감을 전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 「길」에서 “키 큰 나무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커졌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키 큰 나무 사이를 걸으며 나는 울었다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너무 약해서  
키 큰 나무 숲은 험한 길이어서

키 큰 나무 사이를 걸으며 나는 웃었다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고귀한 내가 있었기에”

농사일로 힘든 몸을 이끌고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은 논산시여성농민회의 활동을 통해 ‘너무 작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 속에서 ‘훨씬 크고 강하고 고귀한’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이 논산여성농민회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 과정을 통해 여성농민은 삶의 주체로서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생산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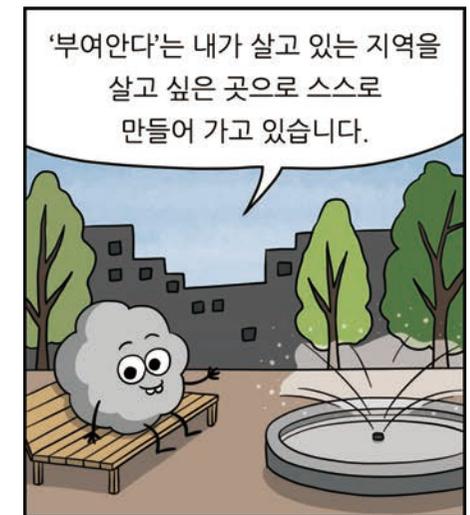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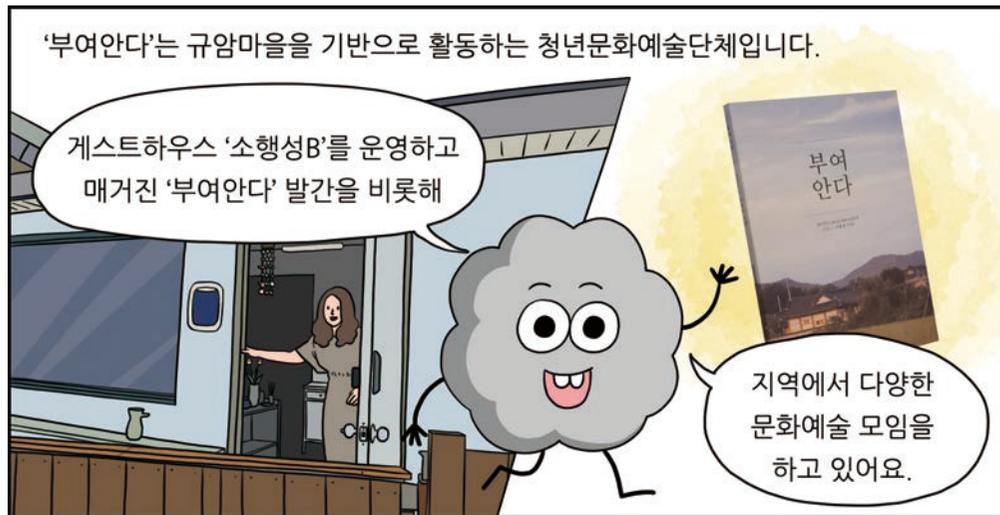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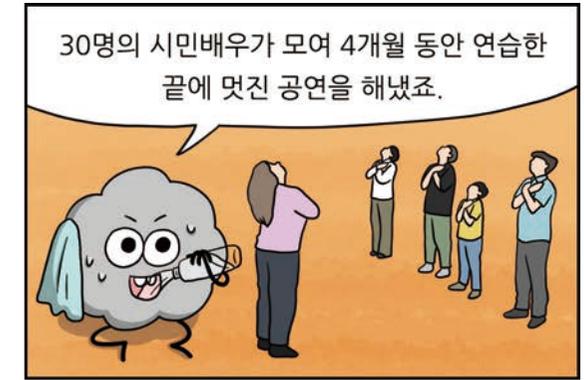
### 논산시여성농민회 활동일지

2016년 12월	첫 번째 창립준비모임
2017년 6월~7월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논산시 여성농민 사랑방 (2018, 2021, 2023년 진행)
2017년 10월	논산시여성농민회 창립
2018년	토종씨앗 지키기 사업 시작
2018년 12월	논산 토종씨앗한마당 첫 개최(2019, 2022년 개최)
2019년 5월~6월	열린 강좌(토종먹거리 및 유전자조작 식품 없는 건강 밥상)
2021년 7월	남해 인문학 기행(여성농민 작가와의 대화)
2021년 10월	토종채 발간 첫 준비모임
2022년 6월~8월	여성농민 영농여건개선 마을교육(40개 마을)
2022년 10월	논산 토종씨앗소책자 발간
2022년 10월	군산역사기행
2022년 11월~12월	여성농민행복바우처 폐지반대 운동
2023년 6월~8월	여성농민 영농여건개선교육 마을교육(55개 마을)

## 청년들의 예술활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다

“예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순간의 감동, 그 순간을 공유하면 말하지 않아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어커먼비트(A Common Beat)를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화합의 시민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부여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각자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4개의 대륙. 각자의 문화와 노래, 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대륙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 채 권력자가문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대의 실수로 다른 대륙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들에 대해 사람들은 반가움, 호기심, 불안과 경계심 등 저마다의 감정과 태도를 가진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고 폐허가 된 자리, 심장 소리에 맞춰 결국에는 다함께 잘 살기 위한 희망의 멜로디를 다함께 부른다.

‘부여비트’라는 이름의 이 공연은 2022년 11월 27일 처음 무대에 올랐고, 인구 6만여 명의 부여에서 2회에 걸쳐 이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은 무려 700여 명이 었다. 배우들은 30여 명의 부여시민으로 14세 중학생에서 71세까지 다양했다. 경험 없는 아마추어들의 공연, 그리고 이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한 단체 ‘부여안다’ 역시 생긴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전문 공연단체도 아닌 이들이 어떻게 3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모아 대규모 공연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커먼비트(A Common Beat)라는 뮤지컬이 원래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작품을 재일교포 연출가인 한주선 씨가 일본으로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폴울림’이라는 NGO단체가 일본의 시민뮤지컬 단체 ‘커먼비트’와 합작으로, 100명의 한일 시민들을 모아 10년 넘게 공연을 해왔어요. 제가 도시에 살 때 이 공연에 시민배우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서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 아마추어 청년단체가 시민뮤지컬에 도전한 이유

‘부여안다’의 활동도 부여비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부여로 모여들었고,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다.

부여비트의 총 연출을 맡은 부여안다 대표 김한솔 씨는 2년 전 부여에 왔다. 2020년 11월에 1년 살이를 계획하고 도시재생 쪽 회사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부여안다 김한솔 대표



2021년 3월,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단체 '부여안다'를 만들었다.



청년들의 부여살이를  
기록한 매거진 '부여안다'

잘 맞지 않아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래도 부여에서 더 살아보기로 했어요. 좋은 공간과 스토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느낌이어서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두 명을 꼬셨죠.”

한솔 씨는 로컬푸드 음식점인 부여제철소를 열었고, 하루에서 한 달로, 1년으로 제법 오래 머무는 친구들이 다섯 명쯤 되었을 때 '부여안다'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사진을 찍는 친구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의 활동을 기록해 보기로 했고 매거진을 만드는 사업을 신청했어요. 사업을 하려면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만든 게 '부여안다'예요. 매거진 이름 그대로 단체명이 됐죠.”

여기서 '안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다. 어떤 곳에 대해 알아나가는 것 (know)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사람과 장소를 껴안는다(hug)는 의미도 있다. 얼렁뚱땅 단체를 만들었지만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하자고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저 혼자만의 단체이길 바라지 않아요.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단체가 필요하면 '부여안다'의 이름으로 해요. 단체 특방에 '이런 게 있는데 해볼까?' 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진행하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식이죠.”

단체 특방에는 현재 20여 명이 참여한다. 매거진을 만드는 것 외에도 영화보기 모임, 스페인어 배우기 모임, 시 모임(규암 아침 열시), 게임 모임(부여TRPG), 운동하는 러닝 모임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팝업스토어를 열거나 수혜를 입은 청년농부를 돕기도 하고, 부여안다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규암마을 지도 홍보물을 만들거나 인스타그램에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한 짧은 영상을 만드는 작업도 했다.

“청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이나 지역개발업체 같은 곳은 규암마을을 부르는 명칭도 자신들이 하는 사업으로만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여안다가 마을지도를 만들자고 하니깐 이쪽저쪽 다들 참여해 주셨어요. 저는 예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순간의 감동, 그 순간을 공유하면 말하지 않아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어케 먼비트를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2022년 4월 청년아지트  
소행성 오픈



###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시민뮤지컬 '부여비트'

하지만 공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문턱은 높았다. 공연 전공자가 있거나 기존의 문화예술활동이 오래되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뮤지컬이었기에

소액 사업도 맞지 않았다. 다행히 청년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충남 청년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시민배우를 뽑기로 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7세부터 71세까지 나이도, 하는 일도 다양했다. 어릴 적 꿈이 배우였다는 학교선생님도 있었고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었으며,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포스터를 보고 혼자 신청한 남자 고등학생도 있었다.

부여안다는 시민배우로 신청한 사람은 모두 함께하고 대신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나눴다. 저마다의 부푼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4개월가량 주말마다 모여 대사와 동작을 연습했다. 한솔 씨는 서울에서 어커먼비트를 함께 공연했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흔쾌히 서포터즈가 되어 주말마다 내려와 시민배우들을 지도해 주었다. 부여안다는 원저작자의 라이선스를 얻는 작업부터, 무대



2022년 11월 27일 부여비트 공연 모습.  
2회 공연에 700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

2023년 부여비트 2기  
공연 연습 모습



의상, 음향 등등 온갖 잔일들을 도맡아 처리했다.

“연출자 한주선 씨가 공연하는 날에 직접 와주셨어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관객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인 시민배우들이었기에 무대 뒤에선 어수선하고 어색해하던 분위기가 흘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주선 씨가 모두를 집중시키며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무대에 오른 배우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 정하게 바라보며 공연을 펼쳤다. 시민배우 중에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도 있었다. 휠체어를 탄 채 열심히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 2023년 한주선 씨의 초청으로 일본여행까지 가게 되었을 때, 60살이 넘으면 그만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길 잘했다는 감상을 남겼다고.

“그 전에는 부여안다를 공모사업만 노리는 단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여비트 공연 이후로는 그런 분들조차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해요.”

청년단체로 소개되던 부여안다가 부여의 남녀노소 시민들을 만나며 문화단체로 활동반경을 넓힌 셈이다.



2023년 7월 2일 부여비트 2기 공연이 사비마루에서 펼쳐졌다.

## 다양한 활동 비결, 공유 공간과 비빌 언덕

부여안다가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 그중 하나는 아지트점 게스트하우스인 '소행성B'다. 소행성B는 부여읍내 가정집을 셀프인테리어해서 만든 공유공간이다. 공유공간을 운영해봤던 한솔 씨는 공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재밌게 지내는 걸 보고 다른 친구들이 계속 부여로 여행을 와요. 앞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더 많이 올 테니 아지트 점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됐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속도에서 조금 자유로운 우리만의 행성에 오는 기분을 만들어 주고 싶

었어요.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은 안 왔으면 해서 따로 홍보는 하지 않은 거죠. 저녁에 한 잔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서 살고 있어, 너의 고민은 뭐니’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어요.”

이들은 집 주인을 찾아가서 공간을 만들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저렴한 가격에 세를 얻었다. 페인트칠이며 아치 장식 등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 편하게 지인을 부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비를 책정하고 부여안다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관리했다. 부담 없이 내려온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일주일에서 한 달로 머무는 시기가 길어지더니 부여에서 할 일을 찾았다. 부여비트 때문에 주말마다 내려오는 서포터즈들도 별도 비용을 주지 못하는 대신 소행성B의 숙박을 제공했다. 2022년 4월에 만들어진 소행성B는 홍보문구 없이 일 년 동안 다녀간 사람만 130여명, 누적 방문객은 600명에 이른다.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마스터’라고 불리는 비빌 언덕의 존재다. 마스터는 한솔 씨가 부여제철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표고버섯 농부인데 7~8년 전에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줄까 부터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2023년 부여비트 2기를 디렉팅한 부여안다 회원들



저만 한 딸들이 있는데 다 외국에서 살고 있대요. 한번은 소행성B 집수리하는데 온갖 장비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일당을 조금밖에 못 드린다고 하니 ‘나이든 사람 재미있는 거 빼앗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한번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한솔 씨가 지역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집주인은 젊은 여자가 그런 공간을 찾는 게 수상하다며 신원을 알려달라고 했다. 한솔 씨가 속상해서 마스터에게 말하자 바로 마스터가 지인을 통해 지금의 공간을 알아봐줬다. 부여비트를 한다고 하니 30명의 시민배우 중 10명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했다.

“정작 자신은 부여비트의 주연 말고 주민3 역할 정도만 된다고 하세요. 마스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턱대고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부여안다 매거진에는 이런 말이 있다. ‘1지역 1마스터가 필요하다’고. 지역마다 이런 비밀 언덕이 있다면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에 더 주저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만들다

다양한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부여안다 매거진2도 만들고 있고 친구들과 교환일기 형식의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23년 부여비트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처음과 조금 달라졌다. 일단 시민배우의 수가 40명으로 더 늘었다. 작년에는 나름 공연 경험이 있는 서포터즈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도움을 주었지만 올해는 작년의 시민배우들이 서포터즈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리고 공연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이런 공연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유료공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원씩 내서 지역 청소

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한솔 씨는 부여안다의 활동에 대해 살고 싶은 곳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내년에도 또 공연을 할지는 알 수 없죠. 확신하고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감동과 여운을 못 잊고 또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 부여안다 활동일지

2021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신청
2021년 3월	임의단체 설립
2021년 12월	부여안다 매거진 발행
2022년 4월	소행성B 게스트하우스 오픈
2022년 7월	부여청년 교환일기 출판
2022년 7월	뮤지컬 참가설명회
2022년 8월~11월	매주 주말 연습(부여국민체육센터)
2022년 11월	청년네트워킹 파티 '이음'
2022년 11월	부여비트 1기 공연
2023년 2월	뮤지컬 참가설명회
2023년 3월~6월	매주 주말 연습
2023년 7월	부여비트 2기 공연
2024년 4월	청년 공동창업공간 '두부' 오픈예정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은폐된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히다  
일본 '간토대학살'을 기록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108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촛불을 들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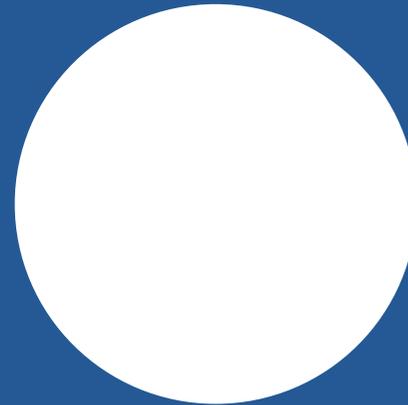
120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보루  
지역사회에서 차별·혐오에 맞서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132

여성폭력부터 일상 속 문제까지 지역을 건강하게!  
데이트폭력 료헤이 퇴출 운동  
아산시민단체협의회

144



# 은폐된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히다

“역사를 다시 보고 듣고 하면서 내가 알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서는 대지진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간토학살은 한국에서의 광주학살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 '간토대학살'을 기록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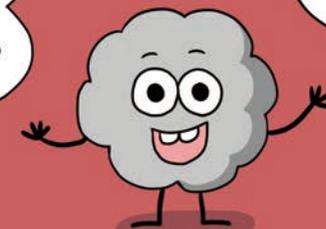
기억과 평화는 1923년 간토학살을 기억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일본 가나와현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조선인들이 천황을 죽이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 600여 명이 학살당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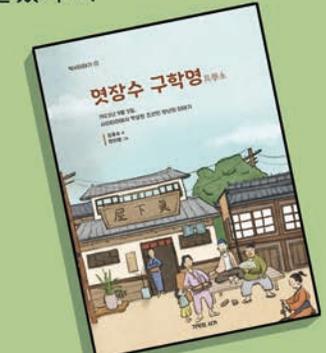
일본은 계엄령을 선포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일이 기억과 평화가 하는 일 중 하나랍니다.



'1923역사관'을 만들어 간토학살에 대해 알리고 기억하는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아우내 심플스테이'에서 쉬고, 놀고, 머무르기도 해요.



간토학살 당시 살해된 조선인의 이야기를 담은 <옛장수 구학영>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2023년은 간토학살이 일어난 지 100주기가 되는 해예요.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100주기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김종수 상임이사

1923년은 일본에서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해다. 더불어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날이기도 하다.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안에서 진도 7.9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만 여 명에 달했다. 지진 직후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천황을 죽이기 위해 폭탄을 들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9월 2일 계엄령을 시행했다.

“실제 계엄령을 모의한 것은 지진 발생 후 3시간 뒤예요. 지진으로 모든 것이 붕괴되니 미디어가 없어요. 경찰력과 기마병을 동원해 유언비어를 정부 발표처럼 확산시켰어요. 후에는 언론으로 하여금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기사화하려고 했어요. 1일은 지진이 일어난 날이었고, 2일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날이기도 했죠. 새로 출범하는 내각과 유언비어 유포, 계엄령 발포와의 역사적 연구가 많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접근으로 여러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지와 목이 잘린 채 학살된 조선인의 사체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김종수 상임이사는 당시 일본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을 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 단순히 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계엄령 선포로 민간인, 그리고 조선인 6,000여 명과 중국인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은 조선인을 내란 주동자로 내몰아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다.

## 간토학살 규명 운동의 시작 ‘아힘나평화학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춤을 추다가 광주 사건을 들었죠. 다음 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영화 택시에 나오는 한스 기자가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광주 사건의 진실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만 했던 간토학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그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몰려왔죠. 그때부터 이 운동에 뛰어들게 예요. 그게 2006년이죠.”

간토학살 규명 운동의 시작은 한 작은 학교였다. ‘아힘나평화학교’는 가족에게 버려진 아이들이나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다. 아힘나평화학교의 교장이기도 했던 김종수 이사는 일본의 한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도쿄에서 캠프를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2006년 7월 한일청소년평화캠프를 열었다. ‘한일 간 갈등이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한복과 기모노를 바꿔 입는다고 평화가 이뤄질까?’ 그는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고민이 들었다. 고난과 아픔의 역사가 있던 현장에서 서로의 역사를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때 간토학살 당시 10세 소녀였던 야기가야 타에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은 아힘나평화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완공했다.



2006년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 캠프에서 야기가야 타에코 할머니를 만난 한국의 10세 소년

코 할머니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그 역사를 다시 보고 듣고 하면서 내가 알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서는 대지진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1923년 간토에서의 사건은 한국에서의 광주학살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건에 대해 파고들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역사학자가 아닌 내가 뛰어들게 된 거죠.”

이후 2007년 8월 ‘아힘나운동본부’를 결성, 제1차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조사 활동을 시작해, 그해 11월 도쿄에서 일본과 재일 연구자, 조사 활동가들이 관동조선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를 구성한다. 2008년 1월 일본 기타큐슈와 후쿠오카에서 사진자료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09년 1월 한국에서도 한일재일시민연대가 구성된다. 2013년 6월 관동조선인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12월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2014년 여야 103인 명의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2023년 11월 6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9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주민신협과 함께 아힘나평화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해 1923역사관을 개관했다.

“이 사건을 정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7년 유기홍 의원을 만나 국회에서 패널전시회를 열었죠. 2023년 올해 100년이 되어 100명의 의원을 모아 발의했지만 상정되지 않고 있어요.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추도식이나 추도사를 발표한 적도 없어요. 이 사건은 여야 구분이 없어요. 이 사건은 학살의 문제입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관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만 생각했으면 저는 쉽게 좌절했을 거예요. 긴 세월이었죠.”

### 힘든 상황 속에서 협동과 연대로 한 걸음씩

천안 병천면 은석산에 위치한 아힘나평화학교는 2017년 수해를 입었다.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피해는 컸다.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건물에

들어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보일러 수리 기사 찾기도 어려웠다.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신입생도 받지 못했다. 아우내 재단은 15억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재단은 건물 소유권을 내놓기로 했다. 그때 찾은 곳이 신협이었다. 신협이 재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연수원을 설립하고 대신 재단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아힘나평화학교가 있던 자리에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아우내쉼플스테이,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아리아리 협동조합 공간이 만들어졌다. 각각의 협동조합이 아우내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체제인 셈이



초입에 위치한 아우내쉼플스테이와 1923역사관 안내판

아우내쉼플스테이는 신협 연수원으로도 활용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1923역사관에서 역사 공부도 함께 하며, 아우내쉼플스테이에서 캠핑도 하고 쉬고, 놀고, 머문다.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죠. ‘기억과 평화’가 하는 일이 역사를 콘텐츠로 만들어 공급하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협동조합은 아마 10퍼센트가 안 될 거예요. 이 일이 좋고,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니깐 하는 거죠. 기억과 평화 협동조합은요, 후원자가 많지도 않구요, 조직적인 인적자원도 만들지 못했어요. 협동조합이 돈 벌 계획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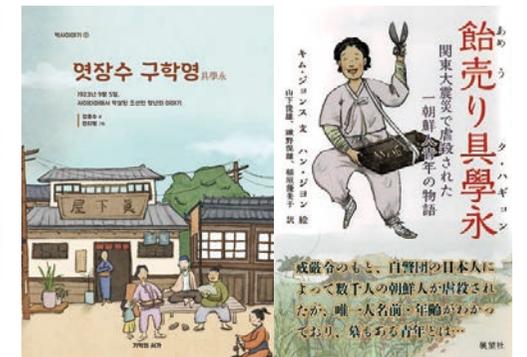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는 2017년 발기인을 모집해 2018년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다. ‘기억과 평화’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생산자조합원인 역사학과 인문학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 소비자조합원들은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다른 이들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 간토학살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는 다크투어를 구상하며, 강연자를 섭외해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자들의 콘텐츠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살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학살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조선인 구학영의 묘



옛장수 구학영 한글어판과 일본어판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에서 주최하는  
'2023역사야 놀자' 참가자들이 1923역사관을 방문했다.

걸려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기려면 엄청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해요. 일본과도 협력해야 하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중수 이사는 2021년 3월 <옛장수 구학영>을 출간했다. 구학영은 간토학살 당시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이다. 옛장수를 하며 살아가던 구학영은 지진 후 계엄령이 시행되면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김 이사는 매년 아이들과 간토로 수학여행을 갔다. 일본에서는 간토학살에 희생당한 이들의 추도비 뒤에 매년 목비를 세운다. 김 이사와 일행은 한국 소나무로 만든 목비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목비를 세우며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때 구학영의 추도비를 만났다. 일본의 한 학자가 구학영의 나라에서 그를 추도하는 것은 당신들이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이쇼시대의 조선인 학살(大正の朝鮮人虐殺)>이라는 일본 책이 있는데 출판사를 검색하니 폐업했고, 작가를 찾으려니 돌아가셨어요. 유족을 찾아 한국판 발간을 허락받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책에서 구학영 부분을 가져와 내가 글을 쓰고 한지영 씨가 그림을 그려 출판하게 된 거죠. 이후 일본에서도 출판하고 그 이야기가 소문나 재미동포도 함께 하자 해서 영어로 번역되어 9월에 나왔어요. 독일 2세가 역사관에 머물다가 독일어로 번역하자 해서 4개 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묻힌 이야기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알려지게 된 거죠. 사람이 계획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것은 무언가 역사적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는 ‘기억’의 힘

2023년 9월은 간토학살이 일어난 지 100주기가 되는 해다. 김태영 감독이 제작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다큐 ‘1923’은 2024년 2월 중순 베를린영화제에 출품하며, 국내에는 2024년 4월 경 개봉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다큐투어를 기획했다. 한국에서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갈등을 넘어 화해를 위한 문화제’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일본에서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추도대회’를 개최했다.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잊히고 은폐된 역사를 기억하는 일, 이념이 되었든 국적이 되었든 다름이 극단적이 되어 폭력화된 피해를 받은 역사를 기억하는 일, 고통 받았던 그들의 기억을 계승하고 다시는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억과 평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다.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면 내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아픈 기억 속에서 성숙해 왔다. 사랑도 그렇고 사별의 기억도 그렇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과 해야 하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된다. 아픈 기억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 이사는 “죽은 자의 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는 산 자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주와 광주 학살, 세월호와 용산, 이태원까지 기억을 덮기 위해 트릭을 쓰잖아요. 기억을 못 하게 막고 있잖아요. 내가 왜 죽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만드는 것, 역사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민족, 국적, 이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부추기고 미움을 만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기억과 평화’가 앞으로도 하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기억과 평화 활동일지

2007년 11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출범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설립 발기인 모집
2018년 7월	‘기억과 평화’ 창립
2018년 12월	<아우내마을이야기>, <아우내 숨은 독립운동가 김구영> 출간
2019년 4월	경기문화재단 만세운동 ‘경기도에서 만나자’ 사업 수행
2019년 5월	5·18기념재단 역사생생방송, ‘5·18을 만나자’ 사업 수행
2020년 9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설립
2021년 3월	<옛장수 구학영> 출간
2022년 7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2023년 9월	간토학살 100주기 다큐투어



2023 간토학살 100주기 한일다크투어 포스터

#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촛불을 들다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한 전제는 바로 기억하는 일이죠.”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2014년 4월 16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히지 않는 사고가 터졌다. 여객선 세월호는 473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뒤집힌 배 끝이 바다 위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아침 뉴스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구조 장면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전 국민은 세월호가 속수무책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승객 304명이 실종·사망했고 사망자 대다수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침몰하는 와중에도 선내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승객을 버려두고 선장과 선원 15명은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침몰 사고의 원인과 구조 문제, 이후 처리 등에 관해 엄청난 논란이 들끓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잠시뿐일 거라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처럼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그저 잊혀지고 희생자들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묻힐 거라 여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다. 기억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매년 촛불을 들고 모였고 촛불은 때로는 정권을 심판하는 횃불이 되기도 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 충남에도 여전히 매년 그날을 기억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이하 서산태안시민행동)이다.

###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다

최진일 새움터 대표는 당시 서산에서 모닝과 레이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인 동희오토에서 일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라인에서 일하면 TV를 볼 수 없어요. 다들 이따금씩 핸드폰으로 소식을 듣는데 그날 다들 좀 멍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머릿속으로는 접수가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 인쇄된 파일 홀더를 보여주며 웃고 있는 최진일 새움터 대표



2016년 세월호 추모행사, 1,500명이 참여했고 예술가들이 만든 등대도 등장했다.

처음에 서산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행동을 시작할 때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인철 목사와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등 지역의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주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 모임(이하 행서모)’이 결합했다. 행서모는 단체랄 것도 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10명 남짓의 정기적인 모임이었다. 비교적 젊은 활동가들이 있었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례행사의 기획이나 실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단체에서 이런 시민 행사를 기획할 때 눈치가 좀 보였어요. 노동자 조직이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안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 시민사회 접점들을 만들고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원들은 처음에 촛불집회 가면 너무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했죠. 덕분에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이후 1년, 2년까지는 사람들이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 촛불집회는 매주 이어졌고 2016년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서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명 가까이 모였다. 충남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추모 문화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한 예술가분이 대나무로 커다란 등대를 만들고 트럭에 실어다가 색칠한 것도 기억나네요. 학생들의 추모작품도 전시했죠. 솟대도 만들고 고래 조형물 같은 걸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서 나간 적도 있는데,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파이프라인을 갖다 대서 전시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죠.”

세월호는 정권이 바뀐 2017년에야 인양되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미수습자의 유해 수습도 2018년까지 이어졌다. 행서모에서는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고 그 고민이 이어져 2018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를 만들었다. 새움터는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두고 노동자의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무료 상담, 현장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진일 씨도 2019년부터는 공장을 그만두고 대표로 전임하게 됐으며 지금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로 확대됐다.

### 세월호를 넘어 존엄과 안전을 위한 시민행동으로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20년 세월호 참사 6주기 때부터였다. 2019년 때부터 논의한 끝에 세월호뿐만



2019년 4월, 세월호 이후를 위한 시민 간담회를 열었다.



2019년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념으로 학생들의 추모작품을 전시했다.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다. 노동운동계에서 원래 4월은 ‘노동자와 건강권 쟁취의 달’이었고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다.

2018년 겨울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9년에는 서산의 한화토탈에서 스테린모노머(SM)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됐고 서산에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주민이 함께 협력해 대응하는 경험을 쌓았다.

“시민건강 이슈들이 활발한 때였어요. 세월호 이후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슈들을 가지고 펼쳐보자고 얘기해서 6주기 기획회의 때 명칭에 대해 논의했죠.”



2022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기념

전국적으로도 세월호의 의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는 그 전해부터 100회에 걸쳐 논의되었던 결과를 담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4.16 인권선언은 정부의 구조 의무, 책임과 재발방지, 피해자의 권리, 권력기관이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저항할 권리,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등 13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4.16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명칭을 새롭게 했지만 연대체일 뿐, 기획단의 형태로 다함께 준비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곳곳에 게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요구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화학사고 조사 재발방지대책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 보장, 재난 앞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동자-서민을 위한 코로나 19 대책 촉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존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에는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캠페인도 함께 했다.



2023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의 벽 전시 모습



세월호 참사 9주기 때 발언하는 모습

게시됐다.

기념행사를 했던 맨 처음에는 피켓 들고 나타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없다. 그런데 9주기쯤 되니까 세월호 사건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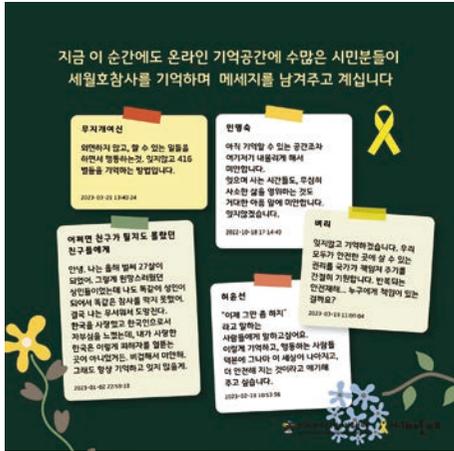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꾸준한 활동을 하는 분은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 수십 년이 걸릴 일,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한 ‘기억’

“저에게 4.16은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만으로 한정시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얘기를 할까 매번 고민되는 거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축제를 즐기러 모였다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압사 사고가 벌어져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 2023년 세월호 9주기 기념행사는 논의 끝에 이태원 참사 관련 전시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감감이 더 컸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뭘 해야 하지?’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멍해지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맨 먼저 떠오른 게 4.16 인권선언이더라고요. 제일 화가 나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와 비난이었어요. 해결이나 책임, 그런 건 어차피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당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짓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만 보면 모든 걸 혐오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아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공감하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인 거 같아요.”



온라인 기억관에 참여한 사람들의 메시지.  
 “이제 좀 그만 하자’라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이 세상이 나아지고 안전해지는 것이라고요.”

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 그 기억의 대상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  
 건 자체에 대한 기억들이나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이 덧붙여지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기념행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 진일 씨의 생각이  
 다. 세월호 참사 9주기 기념행사 중 하나인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제 좀 그만 하자’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이 세상이 나아지고 안전해지는 것이라고요.”

이제 2024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된다. 지역에서 고정된  
 추모공간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모공간을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모하며 만드는 과정인데  
 공공이 주도하면 이러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대신 각자 자기 공  
 간에다 추모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나눌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사이 세월호는 인양되었고 정권은 바뀌었고 2021년 특별위의 수사결과도  
 마무리되었다. 권력의 세월호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  
 고,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도 처벌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 학  
 생의 응급조치를 방해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어쨌든 이것으로 다  
 끝난 걸까? 세월호 기념행사의 상징 노랑 리본에 담긴 ‘기억, 약속, 책임’은 이제  
 다 해결된 것일까? 진일 씨의 생각은 다르다.

“책임은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도 참사에 관해 어떻게든 정  
 리되고 사회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 시  
 간을 버티는 전제가 기억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억  
 하는 일인 거죠. 참사 초기에는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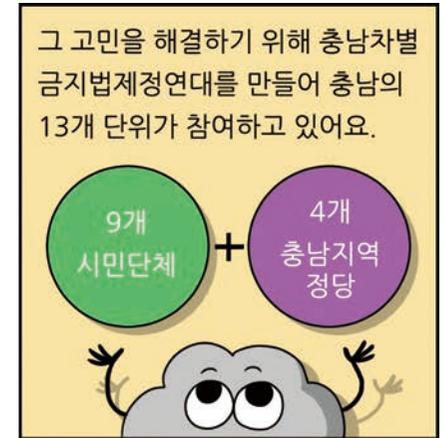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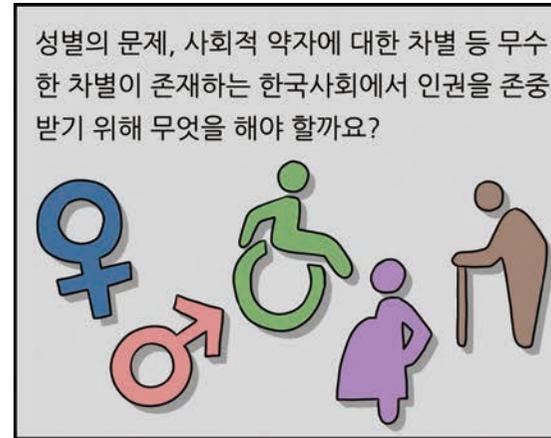
###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 시민행동 활동일지

- 2016년 12월 박근혜 퇴진 시위, 1,500명 참여
-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문화제 ‘진실도 인양하라’
- 2018년 4월 세월호 참사 4주기 ‘슬픔을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 2019년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기획단
- 2020년 4월 세월호 참사 6주기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제안
- 2021년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 세월호 다큐 공동체 상영, 온라인 토크쇼 진행
- 2022년 4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약속, 책임’ 피케팅 및 세월호 리본 나눔
- 2023년 4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리본 공방 운영,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보루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차별이 용인되는 시스템이에요.  
차별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별 사유를 따져봐야 해요.”

지역사회에서 차별·혐오에 맞서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숙 대표

우리 사회의 차별은 뿌리가 깊다. 유교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짧은 치마를 입어서도,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된다. 직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커피 심부름을 하는 막내 신입사원이 지금껏 존재한다. 세대와 젠더 갈등을 비롯해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난무한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차별의 원인에 대해 단 한 가지 이유만을 꼬집기는 어렵다.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결정적 해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문제해결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전국차제연)는 2011년 1월 5일 출범해 2021년 1월 기준으로 142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부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지역의 인권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활동을 시작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8년 4월 3일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2019년 6·13지방선거 이후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그해 8월 8일 3기 충남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2020년 6월 26일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충남도의회가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대에 부딪히며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남차제연 이진숙 대표는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계속 위기를 맞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공감하던 사람들이 2018년 전국차제연을 초대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이를 계기로 다음 해 5월 충남차제연이 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 사회구조 속 용인된 차별 인식해야

현재 충남차제연에는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성소수자모임, 천안여성회, 아수나로 천안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등 9개 시민단체와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등 13개 단위가 연대한다.

충남차제연은 차별의 현장을 찾아가는 평등버스, 전국도보행진, 각종 캠페인과 토론회 등 전국차제연과 함께 발을 맞춰가고 있다. 평등버스는 2020년 8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춘천-원주-세종-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전국 19번째로,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평등버스가 충남도청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며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충남차제연은 2021년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 행동에 들어가는 등 충남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22년 4월 11일부터 전국차제연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충남차제연은 지역 단위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동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존엄한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대표의 단식농성은 21일간 계속

2018년 4월 3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충남도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



2018년 10월 3일  
충남지역차별금지법 토론회

됐으며, 함께 한 임푸른 전 대표의 단식도 17일간 이어졌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좌절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난해 단식농성을 했던 것도 제정 촉구에 대한 동조였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민들은 웬만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왜 법은 제정되지 못할까’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21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는 누군가 곡기를 끊는 것과 같이 극단적 상황이 되어야 이슈가 되는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했다. 단식농성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장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전국차제연의 46일간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무력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가 장애, 성,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 지역, 외모, 피부색, 출신지 등 다양한 이유가 겹쳐 발생한다”라며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차별이 용인되는 시스템이에요. 차별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별 사유를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거기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대부분이라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능력

2020년 7월  
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진행된  
충남차제연 기자회견



주의’에 경도된 사회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인간의 가치를 ‘능력’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재단할 때, 사회적 약자로 태어난 이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만다.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받는 차별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차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대표가 설명했다.

“실제 법이 제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제정되면 고용 차별, 학력 차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붓물처럼 터질 것이고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 모든 시민은 우리 안에 있다

현재 충남차제연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을 3월 2일부터 시작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복 자켓을 입지 않고 패딩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오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2021년 4월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선포 기자회견



2021년 11월 4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도보대행진  
기자회견



제정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의 농성과 각계의 지지와 응원으로 2020년 학생인권조례가 끝내 제정됐다. 2023년 충남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어른들의 시선으로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명의 학생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봐야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 교실 산만,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학생 등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보수진영의 주장에 깔려 있으며, 이러한 혐오선동은 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은 절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활동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 활동 자체의 어려움도 크다. 또한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차별금지법 제정 당위성을 충남 도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에 충남차제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오마이뉴스에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에 관한 릴레이 기고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평등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2023년 5월 17일 충남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과 성소수자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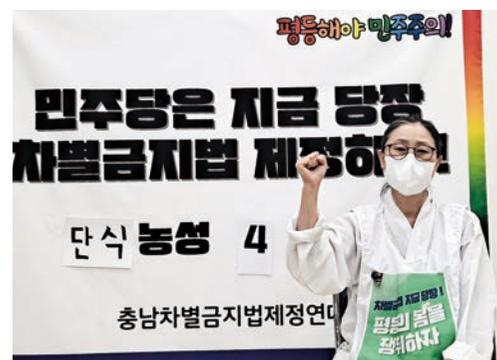
2023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천안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충남차제연 캠페인



2023년 3월 17일  
서산교육청에서 열린 시민 인권강좌



2021년 11월 도보대행진에 참여한 충남차제연



2022년 5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충남차제연 이진숙 대표

문제에 대한 캠페인이 열렸다.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충남차제연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에서 오가는 시민들은 메모를 남겼다.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 ‘성소수자도 인권 있다’, ‘우리 모두 인권이 있으니 인권 차별하지 맙시다’ 등의 내용이었다. 다른 한 시민은 서울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취소되어 서운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모든 시민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20년 넘게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인권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써, 차별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동시에 평등과 차별에 대한 공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이다. 현재 OECD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2021년 12월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대한민국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OHCHR이 지목한 차별 사유는 인종, 피부색, 성,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성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경제적 지위, 혼인 또는 기타 가족 지위, 출생, 연령, 장애, 건강, 이주 지위 또는 그 밖의 지위에 기초한 차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만들었다. 차별에 관한 전문가와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4년 차별금지법 초안이 만들어졌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 입법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포함, 학력, 출신 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의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12월 12일이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은 폐기와 발의가 반복되었다. 2020년 6월 21대 국회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차별의 범위를 23가지로 확대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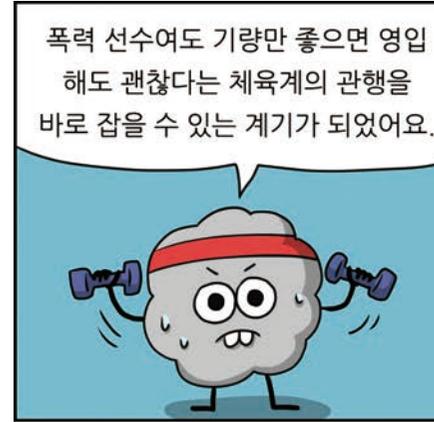
###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일지

2018년 10월	차별금지법 토론회
2019년 5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2019년 10월	평등행진 및 평등 선포 기자회견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0년 8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 평등버스
2021년 4월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목요행동
2021년 8월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 충남공청회
2021년 9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농성
2021년 11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
2022년 5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2022년 10월	충남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청원 현황과 대응방안 집담회
2022년 10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옹호자회의
2022년 11월	아산시민연대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 대책회의
2022년 12월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도민대회
2022년 12월	충남인권조례 위기와 과제 토론회
2023년 3월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2023년 3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

# 여성폭력부터 일상 속 문제까지 지역을 건강하게!

“료헤이 퇴출 운동은 선수 기량만 좋으면 폭력 선수를 영입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거대한 담론은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트폭력 료헤이 퇴출 운동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아산시민단체협의회 박민우 집행위원장(오른쪽)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왼쪽)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렵다. 체육계 내 폭력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의 처벌에 그치게 마련이다. 2021년 2월 24일자 <뉴스원> 기사에 ‘데이트 폭력, 음주운전 전력자… 아산FC선수 영입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아산FC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퇴출된 일본 선수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한국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축구 선수를 영입해 비난을 받았다. 아산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아산FC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구단의 책임과 선수 퇴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6월 일본 선수 료헤이는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는 아산시민단체협의회(이하 아산시민협)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아산시민협 박민우 집행위원장은 “5개월 동안 매일 점심때 피켓팅을 하고 성명서도 수십 장을 썼다”며 “공적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 운영에 자정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산시민협은 2014년 아산YMCA,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책읽는시민모임,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시학부모회, 아산시 이주노동자센터,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사)동학농민혁명 아산시기념사업회,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아산시유족회 등 13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의 간담회

협의체다.

박 위원장은 “진보적 가치와 공동체적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문제와 관련, 민주주의적 가치에 동의하는 단체”라며 “아산시의 현안과 정세를 논의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고 실천한다”고 설명했다.

### 아산FC 선수 퇴출, 기득권과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

2020년 9월 료헤이 미치부치는 교제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전에도 여성 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였다. 료헤이는 이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해 10월 베갈타 센다이에서 방출됐다. 그리고 충남아산FC와 선수 계약을 맺었다. 2020년 12월, 료헤이의 데이트 폭력 사실을 접한 아산시민연대가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아산시민협을 포함, 충남 51개 시민단체가 ‘아



아산FC 이운종 대표이사 사퇴 요구 선전전

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료헤이 선수의 퇴출을 요구했다.

“아산FC는 시민구단으로서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무조건 인정 받는 분위기는 한국 사회를 1등만 기억하는 사회로 만들었죠.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은 아산시가 그런 분위기를 몸소 보여준 행동인 겁니다. 또 체육계의 성과주의로 인한 폭력 문제, 선수 기량만 좋으면 폭력 선수를 영입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료헤이 퇴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충남아산FC는 전 오세현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이다. 더불어 이운종 대표이사가 2008년 종합소득세 등 39억여 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아산시는 논란이 되자 일본 J리그 선수협회와 원소속 구단 확인 결과 무혐의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때 영입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료혜이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거나 관련 행사를 진행하려고도 했다. 또한 아산시 인권센터 진상조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지만 이운중 대표이사는 거부했다. 결국 료혜이 퇴출과 대표이사 사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료혜이 퇴출운동은 기득권과의 지난한 싸움이었다. 료혜이 퇴출운동에 함께 했던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운영숙 지회장은 “그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외로웠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 폭력을 한 것과 선수 기량이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했죠. 놀랍도록 거대한 반대 세력의 힘을 느꼈고, 관계 중심으로 묶인 지역에서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벽을 느낄 때마다 절망스러웠지만 이겨내고 다시 피켓을 들고 나갔죠. 정말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아산시민협 사람들이 아산FC 퇴출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산시민협은 어려운 상황을 연대의 힘으로 극복했다. 나 혼자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 공정에 대한 가치와 공동의 선을 이루는 과정

함께 하면 된다는 믿음과 활동가들의 연대 실천이 아산시민협 활동의 근간이 됐다. 아산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으로 아산시와 의회가 충돌했을 때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해결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은 제8기 민선 교육정책 및 방향에 따른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하나는 ‘아산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과 다른 하나는 ‘2023년부터 교육사업은 아산지원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경비 삭감 철회 요구 선전전

충남교육청과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9개 중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00만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3억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9300여만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은 귀족학교 논란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정책이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조처라며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교육경비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아산시민협 역시 교육경비가 삭감된 것은 지자체 역사 이래 처음이라며, 교육경비는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교육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해 오던 예산인데 의회 동의 없이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학력 차별주의를 바꿀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서열을 없애 모든 사람이 균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잖아요. 공정에 대한 가치, 공동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서서히 진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은 5월 타결을 봤지만 일부 예산안만이 조정된 채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아산시민협은 이후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입시경쟁 해소 선전전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일상적 삶에서 찾아보는 새로운 활동가

아산시민협에서는 매년 4.16 세월호 리본 나눔과 사진 전시회, 5.18 광주항쟁 사진전과 공동체 영화 상영, 8.14 세계 위안부 기림일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21년 1월 중국 우한 교민들이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수용 되었을 때도 이들을 품어 준 것은 아산시 시민들이었다. 당시 우한교민을 받기로 결정한 5시간 뒤 아산시 민협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한교민은 같은 민족이며 형제들이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 동포애적 관점에서 이들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성명서 발표 후 중앙언론에서도 코로나 시국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여론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윤 지회장은 전했다.

“우한 교민들이 가면서 버스에서 고맙다고 쓴 작은 피켓을 보여주고 가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이, 버스 안과 밖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동지애를 느꼈다고나 할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를 품에 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민운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후배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그것이다. 시민운동 활동가들 대부분이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을 받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 당사자가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



온양온천역 앞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

고민이다.

박 위원장은 시민운동의 고령화를 꼬집었다. 같은 가치와 생각, 방향을 보는 후배들이 나올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윤 지회장은 새로운 활동가를 찾는 길은 일상적 삶의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며 고민하는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



우한교민 환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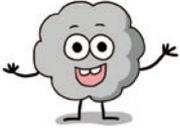
백남기 농민 아산 분향소 설치

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통분모가 다양해지는 거죠. 이를 통해 젊은 활동가를 유입하고 우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된다고 봐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거대한 담론은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민 활동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논의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 아산시민단체 협의회 활동일지

- 2015년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창립
- 2016년 백남기 농민 아산 분향소 설치
- 2017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2018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 발굴 공동 조사단 사업
- 2019년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추모 문화제
- 2020년 아산시 고교평준화 실현
- 2021년 아산FC 료헤이 퇴출 운동
- 2022년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 2023년 교육경비 삭감 반대 운동



본문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충청남공익활동지원센터 마스코트 '공센이'입니다.  
공센이는 충청'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줄임말로, 세상 유일무이하게 '착한 먼지요정'입니다.  
충남에 나쁜 먼지들을 흡수하고 공익적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2023 충청시민사회史

##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걷는 작은거인들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임오윤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행처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cncivil.org)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층 204~5호(충남내포혁신플랫폼)  
전화 041)631-2005  
팩스 041)631-2055  
기획 김다운  
편집총괄 정명진  
취재·글 정명진, 김보리, 안현경  
만화 주신애  
제작 (주)지역콘텐츠발전소  
디자인 디자인이랑